

‘글로벌 異常한파’ 高油價에 기름

‘난방유 수요증가’ 브렌트油 長증 70달러 돌파… 3년 만에 최고
“수입에 의존하는 韓, 비용상승은 부담되지만 수출엔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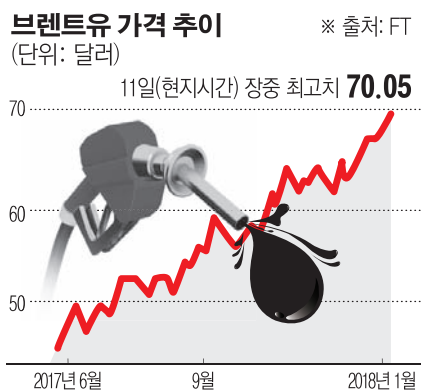
글로벌 한파에 국제유가가 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세계 3대 유종 중 하나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 가격은 11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전일 대비 1.2%까지 오르면서 201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선을 돌파했다. 이후 브렌트유는 최근 강세에 따른 부담감에 상승폭이 줄면서 0.1% 오른 배럴당 69.26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 인도분 가격도 전일 대비 0.4% 오른 배럴당 63.8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시 2014년 12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곳곳의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의 원유 재고가 8주째 감소하고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기록적인 유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새해 들어 WTI는 이틀을 제외한 모든 거래일에 오름세를 보였고, 뉴욕증시 S&P500에너지업종지수는 약 6% 올랐다. ▶관련기사 8면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490만 배럴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미국을 덮친 한파에 많은 유전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원유 생산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949만2000배럴로, 전주 대비 29만 배럴 줄었다.

겨울에는 원래 난방용으로 원유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데 올해는 특히 북미와 유럽에 이상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런 수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바트 멜렉 TD증권 글로벌 원자재 전략 부문 대표는 “미국 원유 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해 시장이 순수하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석유수출기구(OPEC)가 감산을 지속하고 수요도 매우 강하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80달러 이상으로 움직이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

제연구부 연구원은 “최근 유가가 오른 건 수요가 증가한 측면도 있고 공급 차질 부분도 있다”며 “공급 차질 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 단가가 전반적으로 높아져 기업 입장에선 비용 상승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수요 측면에서 기인했다면 세계적 물동량이나 교역량 증가로 수출에 긍정적인 여건이 된다”면서 “최근 유가 상승은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이 큰데 미국의 셰일유 공급이 확대되면 상승 폭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중반대까지 올라와 예상보다 많이 오른 상태”라며 “전망 기관들은 유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 입장에서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이정필 기자 roman@

“가상화폐 자금세탁法 위반”... 당국, 시중銀 돈줄도 막았다

“거래소에 계좌 제고해 편법영업”
신한銀, 정부 압박에 셀프철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점검한 결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주변 산업에까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련기사 2·3·5면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이날 8·11일 6개 시중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신한

행·국민은행·우리은행·산업은행)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조사했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인 계좌를 제공하면서 이에 딸린 수많은 가상계좌를 함께 준다. 이들은 가상계좌의 고액 자금 입출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불법 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법 위반 사례를 더 면밀히

보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을 16일까지 연장했다.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법인계좌로 편법 영업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일부는 가상계좌 발급이 막히자 투자자가 해당 회사의 법인 계좌를 이용하도록 했다. 법인 소유의 계좌를 일반 투자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현행 법 위반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수익이 많다 보니 일부 은행이 내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영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은행은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정리하기로 했다. 또 이들 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제공을 무기한 연기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들도 가상화폐 거래 시 카드 거래를 중단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국내 카드사 8곳이 국내 투자자가 해외 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금지했다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은 기자 gamja@·김보름 기자 fullmoon@

제주 강풍·폭설로 수천 명 ‘공항 노숙’



제주공항 항공편 이용객들이 12일 새벽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공한 매트리스와 담요를 활용해 새우잠을 자고 있다. 강풍과 폭설로 비행기가 무더기로 결항되면서 제주도를 떠나려던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결항편 승객은 대한항공 2023명을 비롯해 총 7047명이다. 연합뉴스

강남집값 부추길 ‘대형惡材’ 또 있다

재건축으로 멸실 늘어 가용 주택수 1149가구 부족... 입주대란 우려

치솟는 서울 강남 집값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대형 악재가 잠복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아파트의 순공급 부족 분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강남권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3만3000가구가 재건축으로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전망이다. 반면 새로 입주하는 가구 수는 1만5542가구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 지역에서 1만7548가구가 줄어드는 셈이다. 부동산114가 입주와 멸실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멸실 물량과 입주 물량 차이가 1만 가구 이상 난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존에 강남 4구에서 순공급 부족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05년으로, 1만2076가구가 입주하고 2만4399가구가 멸실돼 8363가구가 부족했다. 당시 집값 폭등 현상이 발생하며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으나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다.

올해의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도 3만4703가구가 새로 입주하고 3만5852가구가 이주 또는 철거에 들어가 가용 주택 수는 총 1149가구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규제도 한몫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올해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지난해 사업 진행 속도를 크게 높였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올해 총 1만6가구가 멸실될 전망이다. 입주가가 이뤄지는 단지는 1266가구에 불과하다. 서초구도 1만2245가구가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가며 멸실되지만 새로 입주하는 물량은 3728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강남 4구 중 송파구는 입주물량이 1만548가구로 멸실물량인 2857가구를 크게 앞지르지만 인근 지역에서 넘어오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이 경우 강남지역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수요와 함께 새로 강남지역 진입을 시도하는 수요까지 더해지며 매매가 상승은 물론 인근 지역 전세가격까지 치솟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으며 불확실성이 커진 특목고 진학 대신 강남권 명문 일반계 고등학교로 학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양자영 R&C 연구소장은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 2년간은 전세 수요가 매대로 전환되면서 전셋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올해는 매매 시장 불확실성으로 전세로 놀러왔는 수요가 증가했다”면서 “반면 올해는 멸실 주택은 증가하고 입주물량은 부족해 전세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신철 기자 camus16@

홍종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들

‘일자리 자금’ 가입하면 혜택 많아요

응. 아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장 홍보에 나섰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의료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 지역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입을 모아 비판했다. 창신동 일대 업체 대표들은 장관이 다녀간 후 “월 19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과 ‘고용보험 가입자’라는 조건 모두 비현실적이라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과 거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오른 최저임금(시급 7530원)으로 인건비 부담을 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이다. 근로자 1인 당 13만 원씩 보전해주는 안정자금을 수급하려면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유진사의 박군봉 대표는 “최저시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숙련 기술자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고용주로서는 부담이 두 배인 셈”이라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0%에도 못 미쳐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인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것도 이곳 소상공인들의 고민이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근로자 1명과 시간제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라라패션의 천명관 대표는 “제각각 다른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하면 공장에 안 나와 버린다”고 업체를 방문한 홍 장관에게 털어놨다.

의료 제조 경력 32년의 한성화 에이스 대표도 “근로자들은 우리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해도 거부한다”며 “인력 수급이 어렵다 보니 4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사람만 골라서 고용할 수 없는 처지”라고 어려움을 밝혔다.

이날 창신동에서는 불경기에 상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소공인에게 홍 장관이 다짜고짜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는 풍경도 연출됐다. 홍 장관이 라라패션을 찾아 “일지리를 만들기 힘들겠지만 고용을 늘리면 지원을 많이 해드리겠다”고 말하자 “고용을 하고 싶은데 일감이 없고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효정 기자 gradually@

막 내리는 CES 2018...‘초연결시대’ 新기술 총망라

삼성·LG, 스마트시티 퍼스트무버 확인
운전자 소통하는 완전자율차 기술 주목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진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8’이 12일(현지시간) 폐막한다. 9일부터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CES는 이종산업 간 융합과 그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성을 핵심 주제로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5G 등 최근 몇 년간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화두가 됐던 신기술들이 공개됐다.

그간 CES에서 새롭게 부상한 자동차와 가전의 터줏대감인 TV가 주인공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지만, 올해는 가전과 자동차, 휴대 폰 모두 하나로 연결돼 소비자의 일상을 한층 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퍼스트 무버 지위 재확인한 韓·반격하는 日·추격하는 中 = 이번 CES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통해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스마트시티의 미래’라는 주제에 맞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전시관에 초(超)연결성이 기반이 된 스마트 기술을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삼성 시티’를 콘셉트로 내걸고 가정과 사무공간, 자동차 등 소비자의 삶이 이어지는 모든 환경을 연결하는 전시공간을 구성했다. LG전자는 올해 CES에서 AI 브랜드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글로벌 AI 브랜드 ‘씽큐’를 중심으로 AI 전시존을 별도로 구성했고, 서빙, 포터(운반), 소풍카드 등 AI 로봇 ‘클로이(CLOI)’ 등을 통해 스마트 홈을 넘어선 모습을 보였다.

다소 주춤했던 일본 기업들도 ‘CES 2018’에서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8’이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의 삼성전자 부스에 참관객들이 입장하고 있다(왼쪽). 메르세데스 벤츠는 완전자율주행 콘셉트카인 ‘스마트 비전 EQ 포투’를 공개했다.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공개하며 재기에 나섰다. 올해 창업 100주년을 맞은 파나소닉은 ‘스마트시티의 미래’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 맞게 전시장 전체를 일상생활에 맞춘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중심으로 구성했다.

소니도 자동차용 센서를 전시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모습을 시연했으며, 신행 반력전 로봇 아이보도 공개했다.

중국업체들은 다양한 첨단기술을 공개하며 IT강국인 미국과 한국, 일본의 뒤를 바짝 뒤쫓았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업체들은 시티로서의 확장보다 스마트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었다. ‘스마트시티 신경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세워 개방형 플랫폼을 개발하는 화웨이를 제외하고는 하이얼·하이센스·칭훙 등은 한층 강화된 스마트홈 솔루션들을 선보이는 데 그쳤다.

◇주목받은 자동차·자율주행 시대 확 바뀔 운

전석 = 올해 스마트시티 콘셉트로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자동차업체들의 전시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CES는 차량이 운전자와 어떻게 더 빠르게 소통하고 각종 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술인 첨단 ‘HMI’가 대거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현대차는 운전자와 차량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하는 ‘인텔리전트 퍼스널 콕핏’을 전시했다. 개인형 운전석에는 현대차의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 비서 서비스 기술과 운전자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웰니스 케어 기술,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운전공간을 제공하는 차량 개인화 기술 등이 집약됐다.

삼성전자도 하반과 공동 개발한 ‘디지털 콕핏’을 선보였다. AI 비서인 ‘빅스비’를 통해 차량을 제어할 뿐 아니라 집안의 가전 기기까지 작동시킬 수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 = 오연 기자 yerin2837@

‘一攫千金’ 노리고 투기 판 헤매는 ‘코인 노마드’

거래소 신규계좌 잇단 동결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中 바이낸스
개설 재개 1시간 만에 24만 명 가입
시스템 과부하 방지 수량 제한 조치
비트렉스·크립토피아 등 신규 중단
당국 규제강화에 해외 투자 급증세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지면서 세계의 주요 거래소들이 시스템 점검을 위해 신규 계좌 동결에 나서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찾아 전전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유목민처럼 전전하는 ‘코인 노마드(Coin Nomad)’가 생겨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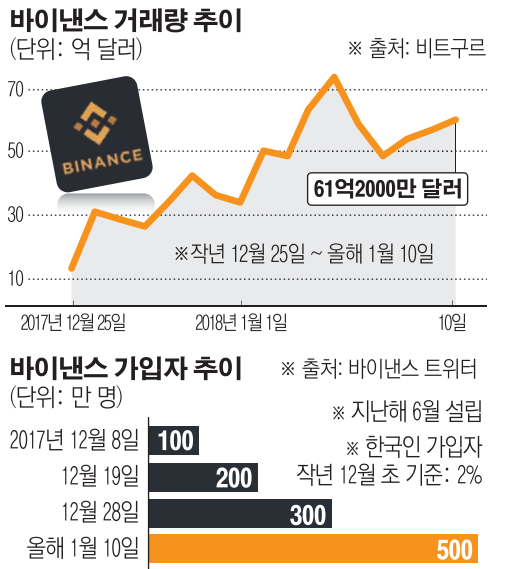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신규 계좌 개설을 재개하자마자 1시간 만에 24만 명이 가입했다. 매주 가입자가 수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신규 고객을 제한하고 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앞서 바이낸스는 물밑듯이 몰려드는 투자자들로 인해 4일 신규 계좌 개설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바이낸스는 하루 25만 명의 신규 가입신청서를 처리해야 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하루 거래량이 약 60억 달러(약 6조4338억 원)로, 세계 1위 가상화폐 거래소다. 이런 바이낸스도 신규 가입자 폭주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것. 앞으로 바이낸스는 제한을 두어 한계치에 도달하면 신규 등록을 중단할 방침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바이낸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빗썸 등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은 현재 가상계좌와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비트렉스와 비트파이넥스, 크립토피아와 코인익스체인지 등 다른 나라 거래소들도 신규 계좌 개설을 이미 동결했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려는 투자자들은 많은데 거래소는 적은 것이 최근 신규 가입자 등록 중단 사태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화폐)이 많이 상장된



곳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설립돼 역사가 짧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세계 1위 거래소로 부상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취급하는 가상화폐는 무려 237개에 달한다. 또 이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가상화폐도 알트코인 중 하나인 트론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각국 규제당국이 본인 인증과 돈세탁 방지 등에 대해 관련 절차를 더욱 엄격히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신규 계좌 대응에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신규 가입자들의 신청 자료를 살펴보는 데에는 얼마마한 시간이 소요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계좌 1건당 심사 10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한 달간 16만 6666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한국 등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뜨거운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른 거래소를 찾아 해외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도 최근 사태에 한몫했다.

문제는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 등 중화권 거래소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강제 폐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채굴업체 폐쇄에도 나섰다. 바이낸스 등이 홍콩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간접적으로라도 새로운 규제를 시도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가상화폐에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며 채굴업체 폐쇄는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등 IT 부문에서 전략적 투자에 나선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파리바게뜨 사태 일단락...‘협력사 반발·3勞組 갈등’ 과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전환 후 제빵기사 고용키로...임금·복지후생 향상 기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촉발된 파리바게뜨 사태가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에 노사가 전격 합의하면서 해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지 113일 만에 업계에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왔던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문제가 일단락됐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와 본사는 11일 발표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불법 파견 논란을 빚어온 제빵기사 5309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과 만든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고 책임

경영 차원에서 본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맡기로 했다.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는 제빵기사는 임금이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휴일 등 복리후생도 본사 정규직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고용부의 파리바게뜨 과태료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파리바게뜨 노사 합의는 대화와 타협을 이뤄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진전된 고용방식을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용부는 “노사·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

해 자회사에 불법 파견 제빵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해피파트너즈 경영에서 일체 배제된 협력업체 12곳의 반발이 크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을 중심으로 한 제3노조의 반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부 이행 방안에도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정부가 자의적 불법 파견 판정과 지속적 직고용을 요구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그동안 손놓고 있다가 오락가락 규제안... ‘패닉’ 부추긴 정부

“정부가 가상화폐 시세조종 세력이나.”
정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과 관련
엇박자를 내자 투자자들이 이를 비판한 표현이다.
이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 가
격은 출렁였다. 공포에 질린 매도, 가격 반등 이후
뒤늦은 후회. 해결되지 않을 굴레가 하루 종일 헛
바퀴를 돌았다.

법무부 “특별법 만들어 거래소 폐쇄”
靑 “확정된 사안 아니다” 입장 유보
정치권 잇단 비판 국회 통과 ‘미지수’

정책 엇박자에 가상화폐 시장 발칵
뜬 난 투자자 “정부가 시세조종 세력”
中채굴금지 등 악재, 피해 확산 우려

◇혼란 만들어낸 정부, 폐쇄안 지속 추진되나
= 이 모든 상황은 정부가 자초했다. 박상기 법무
부 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은
즉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 안이 확정된 것
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11일 동반 급락했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에스트레뉴빌딩에 있는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코인원블록스의 대형 전광판에 표시된 동반 급락한 비트코인 시세표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파장이 커지자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물러섰다. 앞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도 소비자에게 혼란을 줬다. 그는 지난날 28일 “가상화폐 거품이 빠질 것”이라며 “내기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초한 혼란 탓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의 동력이 약해질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범정부 가상화폐TF를 주관했

다. 법무부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가상화폐는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방치할 시 2-3년 뒤 큰 혼란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방침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정부부처 간 공유도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1일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자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대응

2017년
9월 1일 금융위 주재 첫 가상화폐 합동TF 개최
12월 4일 범정부 가상화폐 합동TF, 법무부 주관으로 변경
20일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악관 조사 중이라고 밝힘
28일 가상화폐 거래에 가상계좌 금지 거래소 폐쇄도 검토
2018년
1월 7일 FBI 금감원, 은행 가상화폐 계좌 특별검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 단속하고 엄중 처벌할 것”
8일 경찰, 코인원 불법 마진거래 수사 중이라고 밝힘
9일 금융위, 가상화폐 대책 국제공조 촉구
10일 국세청, 빚쟁이 코인원 세무조사 박상기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 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11일 운영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안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되려 폐쇄안의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폐쇄안에 무게가 실려 있던 것
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의 반발과 지방선거
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11일 일
제히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비판했
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특별법에
대한 국회의 반발이 거세면 유사수신 등에 관한
법률로 가상화폐 거래 제한 허용하는 금융위의
안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투자자 당혹, 피해 확산 우려 = 가상화폐 투
자에 뒤늦게 뛰어난 일명 코린이(코인과 어린이
의 합성어)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발은 심한 상황
이다.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관심에서 파생한 초
기 가상화폐 투자자와 달리 코린이 층은 대학생
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것으로 추측된다. 취업준
비생 정유민(28) 씨는 “부모님 세대는 일찍 취업해
묵돈을 모으면 30대엔 부동산 투자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렵없는 상황”이라며 “젊은층에게 가상
화폐는 흡수저 탈출의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후발 투자자들은 리플 등 값이 싼 코인에
주로 투자해 이번 폐쇄로 인한 폭락장에서 큰 피
해를 보고 있다. 반면 가상화폐 투자가 코인 자체
의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닌 주식시장의 상장페
지종목 정리매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탄돌리
기’와 같은 매매양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거래 규제가 강
화되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거나 중국의 채굴이
정면 금지되면 시장 충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며 “특히 한창 가상화폐시장이 고점이던 때 주력
매수 형태로 진입한 후발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
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다운 기자 gamja@

가상화폐株 우수수... ‘최악의 날’

에이티넵베스트 등 7종목 동반 하한가
주가 20% 이상 빠진 종목도 7종목이나
“급락 공포감... 상승세 되찾긴 힘들 것”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
겠다고 언급하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삼시간
에 추락했다. 과일 양상을 띠었던 관련주 투자 열기
가 공포심리로 급변하고, 투매가 잇따르면서 하한
가 종목이 속출했다.

11일 증시에서는 에이티넵베스트 △대성창투
△SCI평가정보 △버추얼텍 △우리기술투자 △움
니텔 △비멘트 등 이른바 가상화폐 테마주로 불리
던 7개 종목의 주가가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다. 가
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관 사업
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개월 새 급등했던 종목
들이다. 이 중에는 분명치 않은 풍문만으로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었다.

다른 관련주도 가격제한폭까지는 가지 않았지
만 큰 폭으로 하락했다. 넥스지(-28.21%), 퓨전데
이타(-27.10%), 포스링크(-26.84%), 씨티엘(-26.84%),
한일진공(-24.16%), SBI인베스트먼트(-24.01%)
등 7개 종목이 20% 이상 하락했다. 아이지스시
스템(-19.96%), 제이씨현시스템(-18.92%), 위지브
(-18.03%), 모다(-16.58%), 알스포트(-16.32%), 라이브
플렉스(-14.80%), 엔케이물산(-14.08%), 디지털유통

(-13.70%), DSC인베스트먼트(-13.56%) 등도 두 자릿
수의 낙폭을 보였다.

직전 거래일만 해도 급등세를 지속하던 이들 종
목은 이날 오전부터 하락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날 국세청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현
장조사를 벌이거나, 또다른 거래소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다. 정부의 압박이 금융당국 차원을 넘어 정부 전
방위로 확산하면서 경계감이 파진 것.

가상화폐 관련주에 대한 본격적인 투매가 일어
난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신년 기자회견과 발
언이 보도된 점도 무렵이었다. 이날 하한가를 기록
한 7개 종목은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후 1시간
만에 연쇄적으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동시
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20% 폭락했고 주식시장
에서도 다른 관련주의 낙폭이 급격히 확대됐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12일 개장과 동시에 다소
반등했지만, 증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의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과열 이후의 급락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의 발언이 ‘트리거’가 됐
을 뿐”이라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중국 정부
도 압박하고 있고, 급락에 대한 공포감이 형성된
만큼 테마주 투자자들에게도 이전과 같은 시선을
끌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고강도 세무조사에 ‘도박장 개장’ 혐의 수사까지

업계 “스스로 문 닫으란 것이냐” 거센 반발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
한다는 것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고강도 세무조사
와 도박죄 적용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업계
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12
일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
등에서 요구하는 조사나 검사 일정이 계속해서 이
어지고 있다”며 “서비스 개선에 개발인력 자원을
써야 할 상황인데, 인력 부족으로 손을 아예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조사를 해 거
래소가 아예 스스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는 우
스갯소리가까지 나올 정도”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
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6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
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합동검사를 진
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나 업무 협조 등을 요청하
게 돼, 국내 거래소들의 예정된 업무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가상계좌 발급을 틀

어쭈며, 거래소를 길들이기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
오고 있다.

사실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 금
융당국의 조치가 향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문제는 이미 가상계좌와 발급
관련 작업으로 다른 업무가 마비된 상황에서 국세
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빚쟁이 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
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거래소인 코빗
과 업비트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부 거래소의 마진 거래 서비스에 대해 도박장 개
장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이미 외환시장에서 마진거래가 공식적
으로 운용되는 것을 도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
친 해석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마진거래가 도박이면 국가가
허용한 외환거래 마진거래도 도박인 것 아니냐”며
“뭇 하나 잡혀보라는 식의 조사에 대해 참는 데 한
계에 이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더 편리하게! 더 따뜻하게! 디지털 금융이 일어갑니다

보험금지급능력 최고등급
AAA 10년 연속 획득(NICE신용평가)

2017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9년 연속 수상(한국소비자포럼)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5년 연속 수상(한국표준협회)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부문 1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고객접점부문 1위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우수콜센터 8년 연속 선정(한국능률협회컨설팅)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 | 신한생명

한전, 전체 300억 중 256억만 공개…거리 떨어진 표충사에 지원금

밀양 송전탑 건설 보상금도 냈나

송전선로 관련 마을 공동사업비·개별보상금 外 추가 지원 정황
주민 대책위 “지원경위 석연찮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키로

한국전력이 밀양지역 765kV 고압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눠준 보상금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한전의 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전이 전통신찰인 표충사에 지급한 특별지원사업비 2억80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신도회장인 A 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곳과 떨어진 표충사에 한전 특별지원사업비가 지원된 경위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밀양지역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12일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와 관련해 무수히 많은 말들이 떠돌았는데 그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방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지역 주민들은 2005년 말부터 송전탑 반대 투쟁을 벌였으며 150여 가

구는 한전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전이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에서 경남 창녕군 북경남발전소까지 90.5km 구간에 송전탑 161개와 송전선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8월 착공, 2014년 완공됐다.

한전이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 보상비 명목으로 300억 원가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30개 마을에 지역지원사업비 185억 원, 5개 면에 농수산물 공동판매시설 등 신축 지원금 70억 원과 마을행사비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금액만 256억4000만 원 등이다. 특히, 홍익표 의원실의 밀양특별대책본부 자료에서 한전의 ‘특수보상내규에 의한 밀양 지역 공익성 기관 및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 내역에 이번엔 문제가 된 밀양 표충사 지원건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한전의 보상금 유용 사례와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계산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한전은 특수사업보상예규에 따라 경영상 판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원 경위가 석연치 않다”며 “한전은 처음에는 지역 보상금이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라고 했다가 300억 원으로 말을 바꿨으나 수십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압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2 밀양 송전탑 사태’가 재연될 우려도 나오고 있어, 한전이 각종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지원 내역과 자료를 공개하고, 실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표충사 지원금 2억8000만 원이 자료에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한전 남부건설처는 “256억 원은 마을과 관련된 지원금이며, 표충사와 같은 종교단체는 의원실에서 따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웨라트 플라즈 호텔에서 열린 '2018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종배 사무처장, 한국원자력학회 김학노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 자유한국당 이채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구 제1차관, 정근모 KAIST 석좌교수, 이종훈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

2월 임시국회 합의…‘民生법안’ 고삐 죄는 與

최저임금 논란 적극 대응…‘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도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지난 해 난항을 겪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고삐 죄기에 나섰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자리와 민생, 혁신 등 시대 과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해 민생입법 실현과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을 이뤄나갔다고 강조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자들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잇달아 언급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되자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진짜 이유’, 즉 문제의 본질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살인적인 임대료, 카드수수료 폭리, 복합쇼핑몰 골목상권 난입을 문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주장에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짐승본대”라면서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라는 을(乙) 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좌초시키려는 노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와 관련한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기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어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로, 수수료조차 재벌가맹점에 한없이 관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골목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의 난립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며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규제를 복합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최대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문제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회동에서 민주당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되 적용 시기를 3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에 따라 50%만 가산하되, 노동자의 휴일근로를 근절하는 정책을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까지 30일 동안 열린다.

김하늬 기자 honey@

재계·노동계 찾아 ‘사회적 대타협’ 경청간담회

민주당, 내주 商議 시작으로 릴레이 접촉…성과 일궈낼지 주목

여당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분야 현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현장 행보에 들어간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데 이어 여당도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임에 따라, 노동현안 해결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 그리고 주요 경제상임위 간사 등은 15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갖는다.

첫날인 15일 오후엔 대한상공회의소를 가장 먼저 찾는다. 다음 날인 16일엔 한국노총, 17일엔 한국경영자총협회, 18일엔 민주노총, 19일엔 중

소기업중앙회 등 재계와 노동계 단체를 번갈아 가며 만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및 입법 현안과 관련한 노동계와 경제계의 입장을 듣고 요구 사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16.7%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대책 요구, 근로시간 단축 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를 둘러싼 노사 입장차 등이 거론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규제개혁 입법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입장,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제언 등도 듣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18년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기 위

해 집권여당이 먼저 낮은 자세로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에서 이를 풀려는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경청 행보가 사회적 대타협의 밑거름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에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지고 이것이 국민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24일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문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한다”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6명이 함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이 모두 나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미술관 같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1일 오전 개장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예술 작품이 공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프로젝트 기획 의도를 통해 18일에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핵심개념이 ‘아트포트(Art + Airport = Artport)’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면세구역에 설치된 디자인 비채의 작품 ‘Media Cloud’.

뉴스IS

‘닭고 싶지 않은 상사’ 1위 뽑힌 김동연 부총리 조사한 기재부 勞組는 발표도 못하고 ‘쉬쉬’

조직원 대상으로 매해 설문 조사
올해는 ‘닭고 싶은 상사’만 공개

기획재정부가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김동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포함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매년 발표하던 관행을 깨고 이번엔 ‘닭고 싶지 않은 상사’는 공개하지 않고 ‘닭고 싶은 상사’만 발표했다.

2014년에 최경환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닭고 싶은 상사로 뽑히자 보도자료를 뿌리는 등 적극 알린 것과 대조적이다.

12일 기재부 등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기재부 노동조합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기재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장급에서 9명, 과장급에서 10명을 닭고 싶은 상사로 뽑았다.

기재부 노조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표창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설문 조사를 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년 연속 닭고 싶은 상사로 선정되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닭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면 따로 혜택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평판 조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는 어찌된 일인지 닭고 싶은 상사만 공개되고, 닭고 싶지 않은 상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이내 세종 관가에서는 김 부총리가 닭고 싶지 않은 상사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사실이 금방 퍼졌다.

김 부총리가 닭고 싶은 상사로 뽑혔으면 적극 홍보를 했겠지만 쉬쉬한 것이다. 이는 앞서



2014년에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포함되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적극 알린 것과 대조된다. 당시 최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그렇게 일을 시켰는데도 나를 두 번이나 ‘닭고

싶은 상사’로 뽑아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애초 이번 닭고 싶은 상사 발표를 앞두고 기재부 일각에서 김 부총리가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뽑히는 일만은 막으려고 총력을 기울였다는 후문이다.

원래 닭고 싶은 상사와 닭고 싶지 않은 상사 설문조사는 득표 순으로 발표된다. 이에 닭고 싶은 상사에 뽑히고도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선정되는 때도 있다. 일부 국장급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반발이 크자 서로 상쇄해 주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해프닝도 있었다. 그만큼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선정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얘기다.

하지만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선정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뽑힌 이들이 장관급이 되는 사례도 많다. 기재부 차관보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주영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기재부 한 과장급 공무원은 “부총리가 닭고 싶지 않은 상사에 뽑혀서 닭고 싶은 상사에 뽑힌 사람들도 좋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국민의당, 全大 개최 당무위 소집…반대파는 “개혁신당” 공식화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잔류’ 선언

국민의당이 두 동강 났다. 안철수 대표와 통합 찬성파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승인할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학재 의원의 잔류와 유승민 대표의 ‘통합 메시지’ 등으로 힘을 보탰다. 이에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광주에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맞불작전으로 응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1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당무위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전망이다. 위원장은 안 대표의 측근인 김중로 의원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대 예정일은 다음 달 4월께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 대표는 사실상 통합으로 진로를 정하고 ‘돌아가는 다리’를 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전날 중재안을 제시한 당내 종립파 의원을 만나 ‘선(先) 사퇴, 후(後) 전당대회’ 안을 거절했다. 안 대표는 “정당은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도리 아니냐.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며 “전당대회 등 통합 절차나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행의

사를 밝혔다.

바른정당도 안 대표의 통합 행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전날 당 잔류를 선언했다.

그간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復黨)’이 점쳐졌다. 이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도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김세연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하면서 유 대표 ‘책임론’과 함께 통합마저도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에 남으면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양당은 잠시 주춤했던 통합 행보를 멈추고 ‘2월 초’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20여 명이 ‘개혁신당’ 창당을 현실화하고, 중재파인 김동철 원내대표가 안 대표에 등을 돌릴 때는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파 박지원 의원은 전날 안 대표를 향해 “내일 당무위를 소집하고, 대표당원 참석 여론조사로 대표당원 명부를 정리하는 등 쿠데타로 불법 전당대회를 강행하려 한다. 역대 어떤 당대표도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신의 고집을 부린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가상화폐가 ‘도박’?... 법조계 “무리수”

박상기 장관 발언에 전문가들 ‘가우뚱’
“대법원 판례상 도박으로 보기 어려워”
‘마진거래 처벌’ 證市와의 형평성 논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하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법 제정 전 입법 공백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물론 투자자들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도박죄’로 묶어매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으

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내기를 걸어 우연한 승패로 재물을 얻거나 잃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연’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도박은 판례상 우연히 불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투자자들은 나름대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계산해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 당국의 갑날은 이미 가상화폐 거래소로 향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위 업체인 코인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장 개설죄 등으로 수사 중이다. 코인원은 회원들에게 일주일 뒤 시세를 예측한 뒤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찰은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합법인 공매 거래를 가상화폐 시장에서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

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 형법은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과 도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한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다만 잠깐 오락을 한 정도는 제외다. 도박장을 제공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한다. 같은 법 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한다. 도박죄가 적용될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박이라는 불법행위로 번 재산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까지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잠재우려다 보니 무리수를 둔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법인 총정의 안찬식(47·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보는 법률적 근거를 대기 쉽지 않다”며 “가상화폐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는데, 기존 법으로 적용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연일 맹추위, 한강도 얼었다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도를 보이는 등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한강에 얼음이 얼어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낮 동안에도 이어지겠으나, 주말엔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보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수정요청 해야
맞벌이 위한 稅부담 최소화 팀도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최종 수정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다만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

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또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전자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미리 계산·확인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공제 요건,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하면 해설과 공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간편 계산 가능 등이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LG그룹 부회장〉

하현회 “미르·K스포츠 資金 출연 사업투자 아니라 내키지 않았지만”

‘朴 전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 하현회(62) LG그룹 부회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 “사업 투자가 아니라서 내키지 않았다”고 출연 당사를 회상했다. 기업인으로서의 투자성이 없는데도 마치 못해 지원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7차 공판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하 부회장은 “대통령 관심 사항이고 저희가 거절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경제수석이 이야기하니까 노(No)라고 말할 수 없어서 아마 앞으로 자연스레 사안이 놓이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과의 면담이 있지 않았나”는 변호인 질문에는 “단독 면담은 없었다”고 말했다.

LG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총 78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당시 LG그룹은 구분상 전 LG넥스원 부회장 사면 등의 현안이 있었다. 실제로 하 부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구 전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문자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600억 원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 사회기부금 등 관련 연간예산을 받아놓고 사업계획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한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는 대표이사인 제 전결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과 직접 재단 출연논의를 하면서도 구분무 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구 회장에게는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하 부회장은 이날 검찰과 변호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검찰과 변호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채 제스처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해 관계가 맞았으니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취지의 압박 질문을 받을 때는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하 부회장의 상사이자 독대에 참석한 구 회장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날 증거인부서를 직접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은 김승연 한화 회장, 구분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의 검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 조서 등을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들은 철저히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토마토저축은행 투자피해자들 금감원 등 상대 ‘손해배상’ 敗訴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외부감사기관인 회계법인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토마토저축은행 투자 피해자 김모 씨 등 7명이 남일회계법인, 금감원,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 등은 토마토저축은행이 2009년 5월~201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약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위차에 투자했다. 그러나 토마토저축은행은 채무조조로 인한 지급 불능을 이유로 2012년

8월 파산했고, 김 씨 등은 이자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김 씨 등은 2012년 12월 당시 남일회계법인이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금감원 직원 이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1. 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감사절차를 위반했다
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남일회계법인이 당시 발행한 감사보고서는 검토 기준일 당시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후순위위차 발행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 2심은 금감원도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었지만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효진 기자 js62@

KB금융그룹

KB손해보험과
함께 하면
희망이 **쭈욱**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하게
다리 쭈욱 뻗고 살 수 있도록
당신 곁에 당신의 보험,
KB손해보험이 지켜 드릴게요!

무배당

KB The드림 365 건강보험

•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5222호(2017.10.16)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www.kbinsure.co.kr

• 고객센터: 1544-0114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지급제한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 거절 및 보험료 인상,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

 **KB 손해보험**



인간의 능력 **37km/h**



스케이트를 신으면 **54km/h**



썰매를 타면 **143km/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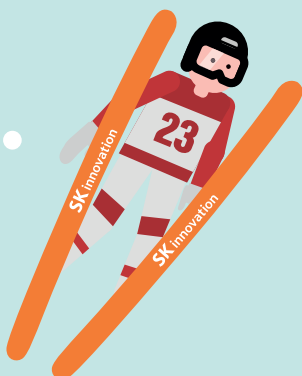


스키를 신으면 **162km/h**



스틱으로 때리면 **170km/h**

응원의 힘을 더하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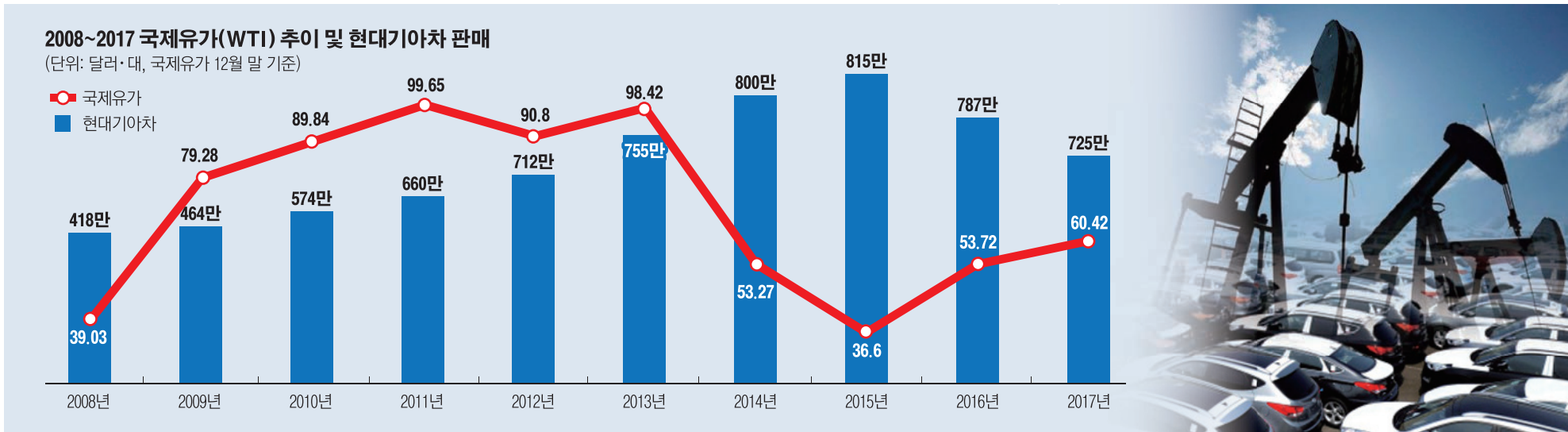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이 하나된 열정을 응원합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공식 정유부문 스폰서

날개 단 油價…글로벌 車시장 재편 가능성

‘低배기량·高연비’ 한국·일본車 유리하다



국제유가 상승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나왔다. 저배기량과 연비 좋은 차에 집중해온 한국과 일본차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반면 미국이 주력해온 대배기량 풀사이즈 픽업 시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12일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지난해 11월 OPEC이 주요 산유국 재정 악화를 이유로 감산 합의를 연장하면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됐다.

동시에 완성차 메이커들이 민감하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기름값이 싸면 대배기량과 고성능차가 인기를 끌지만 반대로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면 배기량을 낮춘 이른바 ‘다운사이징’ 모델이 시장을 장악한다. 예컨대 값싼 기름값을 무기로 대배기량 엔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미국 빅3의 풀사이즈 픽업트럭의 경우 이런 기름값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08년 리먼쇼크 직후 10년래 최고점을 찍었던 국제유가는 이후 배럴당 80~100달러를 유지하며 이른바 고유가 시대를 이여갔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14년까지 이어졌다. 같은 기간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는 속속 ‘다운사이징’ 모델을 앞세워 고유가에 대비했다. 배기량이 낮은 만큼 기름을 덜 소비하게 되고, 고유가에 대한 저항심리를 이용한 타킷 마케팅도 속속 이어졌다.

이 기간 전통적으로 배기량 2.0리터를 고집했던 중형차도 몸집을 유지하는 대신 엔진 사이즈를 줄였다. 배기량을 1.6으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 국제유가로

덩치 큰 SUV·픽업 트럭 수요 위축 전망 속

‘보수적 판매목표’ 현대차 예상의 회복 기대도

2008년 리먼쇼크後 ‘다운사이징’ 고유가 대비

로 낮춘 모델이 속속 등장한 것. 모자란 출력은 과급기(터보)를 추가해 만회했다. 현대차 쏘나타 1.6터보, 르노삼성 SM5 1.6 등이 대표적이다. 배기량 낮추기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도 공통적으로 통용됐다. 기본적으로 낮은 배기량의 소형차를 중심으로 성장한 한국차와 일본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때이기도 했다.

반면 2013년 말, 셰일가스를 중심으로 한 대체 에너지가 속속 등장했고 친환경차가 관심을 모으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했다. 자연스레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저유가 시대가 지속됐다. 저배기량 고연비를 앞세운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반대로 V8 5.0리터 안팎의 대배기량 엔진을 앞세운 북미 풀

사이즈 픽업트럭과 대형 SUV를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됐다. 유가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이 같은 트렌드가 전체 SUV 시장 확대로 이어졌다. 비슷한 기간 한국시장에서도 전통적으로 잘 팔려온 준중형차보다 배기량이 더 크고 기름도 많이 먹었던 중형차 판매가 더 많아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하반기에 시작한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를 자동차 메이커들이 주시하고 있다. 덩치 큰 SUV와 기름 많이 쓰는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이어진다. 국제유가 상승이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의 제품전략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올해 판매목표를 보수적으로 낮춰 잡은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기저효과 탓에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여기에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외적인 요인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 회복세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자동차업계 전문가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 맞춰 다양한 차종과 엔진을 조합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현대기아차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면서 “같은 조건을 갖춘 일본차와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관건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양용비 기자 dragonfly@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 LG ‘로봇사업’ 가속도

국내 개발업체 ‘로보티즈’ 지분 10.12% 취득

LG전자가 국내 로봇개발업체 로보티즈(Robotis)의 지분 10.12%를 취득하며 미래성장동력으로 키우는 로봇 사업에 가속도를 낸다고 12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로보티즈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통주 1만 9231주(약 90억 원)를 취득했다.

1999년에 설립된 로보티즈는 제기, 센서모듈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모듈 관리 프로그램, 로봇 구동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로봇솔루션 및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로보티즈는 로봇의 관찰 역할을 하는 ‘엑추에이터(동력구동장치)’를 독자 개발해 국내 기업뿐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인 ‘에스지로보틱스’와 협력하는 등 로봇 사업과 관련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고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등을 바탕으로 로봇 제품군을 꾸준히 확대하며 로봇 사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9일부터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 CES 2018에서 서빙 로봇(Serving robot), 포터 로봇(Porter robot), 쇼핑 카트 로봇(Shopping cart robot) 등 새로운 로봇 콘셉트 3종을 공개하는 등 로봇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안내로봇과 청소로봇의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로봇 기술 역량 및 사업성을 입증했다.

안내로봇은 위치 인식, 장애물 인식 등 자율 주행 기술, 제어 기술, 사물인터넷(IoT) 등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적용해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해 방문객들로 붐비는 복잡한 공간에서도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운행한다.

청소로봇은 가정용 LG 로봇청소기의 청소능력, 자율주행, 장애물 회피 기술 등을 적용해 넓은 장소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스스로 찾아 깨끗하게 청소한다.

LG전자 관계자는 “로봇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협력은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hlee@

‘가성비 甲’ 트레이더스 高高…

이마트 ‘新성장 엔진’ 역할 톡톡

정용진 부회장 공들인 창고형 할인매장

최근 5년간 투자릿수 고속 성장 이어가

2년 연속 ‘매출 1兆 클럽’ 가입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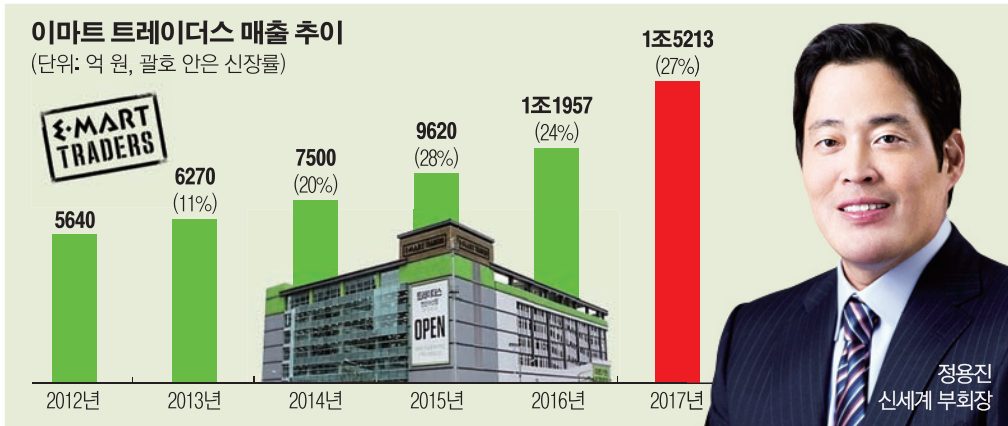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공들여 키우는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가 최근 5년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면서 이마트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트레이더스의 12월 매출은 전월 대비 30.7%, 전년 동월 대비 28.8% 늘어난 152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 15일 군포점(13호점), 김포점(14호점)이 신규 출점한 효과를 제외한 기존 점포 신장률도 21.9%에 달했다. 연간 매출로는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조 클럽 가입을 달성했다. 트레이더스 매출

은 2012년 5640억 원에서 이듬해 6270억 원으로 11% 신장했다.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져 지난해까지 2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5년 9620억 원에 이어 2016년 1조 1957억 원으로 차음 1조 원을 웃돌았고 작년 잠정 매출은 1조 52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마트의 주력 사업 부문인 할인점이 최근 2년간 2~3%대 매출 신장률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트레이더스는 이마트의 신성장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은 모양새다.

2011년 11월 1호점인 구성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김포점까지 트레이더스는 현재 14개 매장이 영업 중이다. 상품을 대규모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점 특성이 소비 트렌드에 부합했고 경쟁 관계인 ‘코스트코’나 ‘롯데 마켓’과 달리 연회비가 없는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새로운 모델로 소비자를 공략한 것이 주



요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아울러 트레이더스가 갖춘 가격경쟁력도 고속성장의 요인 중 하나다. 상품을 묶음 형태인 대용량으로 판매해 상품 신열 등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팔 수 있다. 트레이더스에서는 대용량이나 묶음(번들링) 상품을 일반 할인마트 대비 7~15%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또 트레이더스 출범 초기 문제로 지적됐던 이마트와의 상품 중복 비율도 대폭 낮췄다. 트레이더스는 출범 초기 20% 가까웠던 이마트와의 상품 중복 비율을 현재 5% 수준까지 낮추는 등 상품 차별화에 주력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선보인 자체 브랜드 상품 ‘트레이더스 달도’ 수익률 증대에 도움이 된다.

트레이더스 성장 전략이 먹혀들면서 정용진 부회장도 추가 출점과 조직 정비 등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2016년 인사를 통해 트레이더스 조직을 종전 담당조직에서 본부조직으로 격상시켰고 출범 초기부터 조직을 이끈 노재악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정 부회장은 올해 위례, 목포남양, 여수웅천 등 3개 점을 비롯해 2023년까지 50개 매장을 열어 국내 대표 창고형 할인점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女風 당당’ 포스코

유선희, 그룹 첫 여성 전무·女임원 10명으로

3월 단행 사장단 인사도 안정기조 택할지 주목

포스코가 여성 임원을 대거 발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는 11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여성 임원급 인력이 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인재창조원의 유선희 상무가 전무로, 이윤희 상무보가 상무로 승진하는 등 전무 1명, 상무 1명, 상무보 3명이 임명됐다.

오지은 광양제철소 기술혁신그룹장과 방미정 포스코휴먼스 그룹장이 상무보로 승진했다. 홍진숙 포스코 홍보그룹장은 상무보로 승진해 포스코대우로 자리를 옮겼다.

1990년 여성공채 1기로 입사한 유선희 전무는 포스코 창사 이래 첫 여성 전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유전무는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을 맡으며 포스코 패밀리 신입·경력사원 교육, 파견 주재원 교육을 담당해 왔다. 포스코의 역사와 문화 등을 이룬 시일 에 체득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박미화 포스코 상무가 포스코ICT로, 포스코컨텍에 있던 최은주 상무가 포스코대우로 자리를 옮겼다. 홍진숙 상무보와 자리를 맞바꾼 최영 상무보는 포스코로 복귀해 언론홍보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향후에도 다양성 제고와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사장 이하급 임원인사 이후 단행되는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임원 인사가 종전보다 소규모로 이뤄진 데다 안정을 추구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사장단 인사도 안정 기조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권 회장의 연임 이후 좋은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고, 계열사 정리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통상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 인사는 3월께 단행된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한 달여 앞선 2월에 사장단 인사가 발표됐다. 올해에는 임원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이른 1월에 발표된 만큼, 사장단 인사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이른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항공기 지연보상 확대에…항공업계 “우려”

#사를 연속 이어진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A 씨 가족은 가까운 일본을 계획하고 항공편을 예약했다. A 씨 가족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꿈꾸며 2017년 12월 23일 오전 7시 20분 출발 일본 나리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여행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질은 안개로 인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지연·결항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A 씨 가족은 무려 14시간이나 기내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크리스마스 연휴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주공항이 폭설로 인해 사실상 마비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1일부터 이어진 폭설로 공항 활주로가 3차로나 폐쇄되면서 2500명의 체류객이 제주공항에서 밤을 지새운 것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 18일 내놓을 듯

불가항력 사유 운송지연 입증시 면제 추진…업계 “부담 커져”

이다.

이처럼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대란’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항공사를 대상으로 승객들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막상 승객들이 항공사들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강화’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선 1~2시간 지연 시 구간 운임 10% 배상, 국제선 4시간 이상 지연 시

300~600달러 배상 등 항공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보상액 등이 종전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아졌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최근 일련의 사태와 같은 기상 상태, 공항 사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가 이를 ‘직접’ 입증해야 보상을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졌다.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 대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항공업계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항

문선영 기자 moon@

非회원사 ‘매물 공유’ 배제…공인중개사 ‘그들만의 리그’

지역 거래정보 ‘불공정’ 독점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결성, 회원끼리만 공동중개로 매물을 공유하고 비(非)친목회원을 따돌리는 행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 적발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러한 중개사들의 행동에는 별다른 대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의 일부 중개사들이 모임을 결성해 회원끼리만 매물을 공동중개하고 신규 개업한 비회원들은 거래에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사와 고객을 확보한 중개사가 함께 거래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목동의 비회원 중개사들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 지 1~14단지들 중심으로 결성된 친목회는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마이스파이더’, 또 다른 그룹은 ‘텐’이라는 사실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비회원을 배제한 매물 공유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공동중개에 넣어 달라는 비회원의 요청은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중개거래망을 이용할 수 있는 ‘회선’이 더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정보망 업계 관계자는 정보망을 중개사가 추가적으로 이용할 때 회선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개거래망은 서로 매물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끼리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며 “회선이 있고 없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 친목회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회원 지위 박탈을 거론하며 구성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목동 중개사들이 네이버 부동산 우수인증제 도입을 두고 네이버 부동산 이용을 거부했을 때 우수 인증을 받은 회원 중개소들이 인증을 철회해 달라고 네이버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네이버 부동산이 인증한 중개소가 되면 그룹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귀띔했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공유되는 매물 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영업이 쉽



목동 중개사, 사설 정보망서 공동 중개 신규 회원사는 안 받고 기존 회원 압박

업체 늘어나는데 매물 적어 영업苦戰 과징금 처분 등 국토부 자체 단속 전무

지 않다. 이는 비회원 중개소들이 여태 겪어온 문제다. 중개업소는 늘어나는데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공동중개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다.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상 이러한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피해 중개소의 신고에만 의존할 뿐 정부의 자체적 단속은 없다는 점이다.

비회원 중개사 대다수는 신고로 인한 피해 우려와 증명 책임의 어려움 등으로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시장의 불법 감시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회원끼리만 공동중개하는 실태에 대한 대응은 따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떠오르는 ‘마·용·성’, 강남엔 역부족

〈마포·용산·성동구〉

매매가 상승률 강남4구 못미쳐

마포·용산은 서울 평균도 안돼

지난해 강북권에서 주목받았던 신흥 부촌의 성장세는 같은 기간 강남 4구의 성장세에 비하면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4구가 지난해의 잇따른 규제에 정조준된 지역이라는 페널티를 안았음에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강남 아파트의 위상이 공고함을 시사한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마·용·성’이라 불리는 서울 내 신흥 부촌인 마포·용산·성동구의 한 해간 상승세는 강남 4구에 비해 성장세가 더뎠으며, 오히려 서울 전체 평균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한 해간 서울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각각 성동구 5.83%, 마포구 4.57%, 용산구 3.68% 순으로 올랐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강남의 상승을 위협한

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받았던 서울 알짜 지역 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지난 한 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91%였는데, 마포·용산은 모두 서울 평균을 밑돌았으며 그나마 성동구만이 서울 평균보다 0.92%p 높은 상승률로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한국 부동산시장의 아성인 강남 4구의 입지는 여전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4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은 감정원 집계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송파구의 9.31% 상승을 비롯해 강동구 6.69%, 강남구 6.67%, 서초구 5.38%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4구 모두 서울 전체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강남 4구 평균 상승률인 7.11%는 ‘마·용·성’의 평균인 4.69%보다 2.42%p나 높았다.

강남 4구의 기존 아파트 가격부터가 마·용·성 3구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승가 자체는 마·용·성’을 훨씬 압도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

분당, 15년 만에 새 아파트

경기도 분당 정자동에 15년 만에 새 아파트가 등장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내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분당 가스공사 이전부지에 들어서는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분양한다. 아파트 506가구와 오피스텔 165실 규모로 이 지역에 15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

분당은 지난 9·5 추가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11월 말까지 한국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 값에서 분당은 5.98%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주택 수요가 워낙 탄탄한 데다 주택 노후화로 새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통한 아파트 층층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분당은 전체 아파트의 90% 이상이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인 데다 최근 10년 동안 새 아파트는 3개 단지뿐이었다”며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 새 아파트 공급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사우디 원전 수주戰, UAE 지원사격 기대

칼둔 행정청장·백운규 산업부 장관

사우디 원전사업 공동 진출 공감대

총 10기 100조원 규모…5개국 경쟁

UAE(아랍에미리트)의 실질적인 2인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한 가운데 한국 원전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공동 사업 수주 논의되며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9일 칼둔 청장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찬 회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칼둔 청장과 백 장관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사업에 양국이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의 협력 방식은 컨소시엄 구성 또는 지분 공동 투자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UAE가 현재 시공되고 있는 바라카 원전 성과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경쟁력을 선전할 경우 수주 활동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UAE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중 가장 유력한 곳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꼽힌다. 사우디는 우리가 UAE에 수출한 원전과 같은 용량인 총 2800만kW 규모 원전 2기를 2030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올해 발주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만 200억 달러(약 21조4000억 원)에 달하는데 사우디는 향후 동일 용량의 원전 8기를 추가 발주할 계획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져 총사업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우선 기술력 부분에서 탄기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한데, 이 중 사우디와 원전 건설 관련 협정을 맺은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여기에 UAE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자이드 왕세제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만큼 UAE가 지원사격에 나설 경우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산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GS건설, 12월 착공 예정

GS건설이 부산시와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12일 부산시는 GS건설컨소시엄과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는 만덕대로, 총렬대로 등 기존 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북구 만덕동(만덕대로) ~ 중앙로 ~ 해운대구 세송동(수영강변

대로)을 연결하는 대심도지하터널로, 연장 9.62km의 왕복4차로로 민간투자비 5885억 원을 포함 783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GS건설 컨소시엄이 2013년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시의회 동의,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16년 GS건설 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공사비, 통행요금, 추가공사비 분담 방안 등에 대해 총 38회의 협상을 추진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사유지 통과 최소화를 위한 총렬대로 하부로의 노선변경과 미세먼지 등 제거를 위한 전기집진기 및 유해가스 제거설비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추가했고 교통량 분산 및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 비철도, 심야시간대로 통행요금을 달리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세상의 모든
「초고반발」을
의심하라!

ASAGAO
PROUDIA
| 아사카오 프라우디아 |

아사카오 프라우디아 ▶
24K골드 리미티드
[반발계수: 0.94]

아사카오 프라우디아 ▶
다이아몬드 블랙
[반발계수: 0.93]

| ASAGAO NEW MODELS |

(주)아사카오 인터내셔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34 역선빌딩 2F • 대리점 및 특약점 문의 : 02-564-7280

서울 대명골프 02-567-1602 한타로골프(창원) 02-6595-1902 그린피아골프 02-529-3346 빈트골프 02-3498-0052 PGA골프 02-511-4520 펄스골프 02-501-6034 아베골프(상성점) 02-507-3333 산성골프 02-442-0004 롯데점심 02-2143-7573 롯데본점 02-726-4550 원골프(원플러스) 02-2625-6818 한타로골프(창동) 02-907-1188 아베골프(당심리점) 02-504-6666 뉴러브스포츠 1522-4199 굿월스포츠 02-514-1872 탑골프(반포) 02-591-6452 북악골프 02-916-1108 골프D.N.A(이태원점) 02-792-1872 시티골프 02-3210-1616 이마골프 02-735-4101 뉴클림픽 스포츠 02-2202-1872 제우스골프 02-2212-7533 ID골프 02-3437-8466 클피&골프 02-790-5073 경기 준골프 031-910-2550 와이투골프 02-371-1872 나우골프 031-963-0430 탑골프(일산) 031-968-6018 호스벨리 031-925-0025 제트골프 1588-2951 원광스포츠 031-527-4249 서한골프 031-705-1661 판교골프(유명골프) 031-708-0101 SBS골프 031-286-3345 탑골프(의정부) 031-877-1819 골프D.N.A(평택점) 031-377-1872 굿바이 골프 031-398-0982 센스포츠(영통점) 031-205-2040 센스포츠(광교점) 010-7112-6323 와빠다 골프 010-2727-8915 베스트 골프 031-267-1872 피케이 스포츠 010-9274-9920 인천 골프지존인 천점 032-505-1872 충북 엠(M)골프 043-651-9139 대전 골프산맥스클럽 042-825-2234 대덕골프 042-863-7648 경북 ABC골프(아기) 054-254-0005 하동수골프 054-281-7887 드보골프 053-426-4545 경남 거제골프아울렛 055-636-9688 뉴BM골프 051-507-9018 마리골프 010-9320-8554 퓨전스포츠 051-865-0282 연세골프 051-868-3586 우리골프(울산점) 052-289-1872 대북골프 055-222-4983 피크골프 052-260-1247 그린스포츠(골프) 055-741-1173 조미골프 055-755-0057 전북 팔봉골프 063-833-2624 전남 목포골프 061-284-8410 우리골프(순천점) 061-745-5381

임금 올리고 보너스 주고... 美기업, 減稅 과실 나눈다

세제개혁 낙수 효과

월마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미국 내 직원 100만 명 혜택
AT&T·보잉 줄줄이 상여금
최저 실업률에 고용 경쟁 탔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 개혁이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법인세를 대폭 인하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 복지 혜택을 늘리고 있다. 그 선봉이 유통공룡 월마트다. 월마트는 11일(현지시간) 자사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약 1만 1800원)로 인상하고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2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1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2015년 이후 최저임금은 10달러다. 신입직원 교육을 마치고 1년 전에는 9달러가 적용된다.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미국 내 직원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실제 임금은 이보다 높다. 현재 13.85달러인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14.50달러로 오른다. 일회성 상여금도 지급한다. 상여금은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된다. 20년간 근무한 직원은 최대인 1000달러를, 2년 미만 근무자는 200달러를 받는다. 직원 복지도 강화해 유급 출산휴가를 확대했다. 10주간의 출산휴가와 6주간의 육아휴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녀를 입양하는 직원에게는 입양기관 및 법적 비용 지원 차원에서 자녀 한 명당 5000달러를 지급한다. 월마트 측은

법인세 감세에 임금 올린美 기업

월마트	최저임금 11달러로 인상 전 직원 상여금
월스파고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AT&T, 컴캐스트	상여금 1000달러 지급 약 30만 명 혜택
뱅크오브아메리카	직원 14만5000명에 상여금 1000달러 지급



미국 뉴저지 주 올드브릿지 월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물건을 나르고 있다. 뉴저지/AP뉴스시스

급여 인상으로 연간 3억 달러가 추가 지출될 것이며 성과급으로 4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월마트는 미국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른 이익으로 직원 복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5%에서 21%로 인하되면서 월마트는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월마트가 거두는 수익은 지난해 5000억 달러에 달해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제조 및 연구 개발로 인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소매업 특성상 다른 세제 혜택을 받기도 힘들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세제 개편은 우리가 고객을 위해 투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세제 개편으로 얻은 추가 이익을 고객을 위한 가격 인하, 임금 인상, 직원 교육 및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맥밀런 CEO는 “모든 것이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마트는 온라인 유통강자 아마존의 위협에도 지난해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소규모 매장을 폐쇄하면서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월마트 주가는 40% 이상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마트는 임금 인상과 투자를 통해 아마존과의 경쟁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한다.

앞서 AT&T와 보잉, 월스파고도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세 혜택을 직원과 나누고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서명한 날 AT&T와 컴캐스트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직원에게 1000달러의 상여금을 주겠다고 했으며, 월스파고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고용 경쟁이 심화한 점도 임금 인상을 부추겼다. WSJ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2%는 “현재 미국 경제가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 48%는 “아직은 아니지만 완전고용에 다가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의 최저치를 유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선 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미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7.25달러에 머물러 있다. 이주혜 기자 winjh@

‘EU 리더 부상’ 마크롱, 중국 이어 이탈리아와 스킨십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오른쪽)가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키지 궁에서 포옹하며 시선을 맞추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이탈리아를 찾았다. 유럽연합(EU)의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연정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넘어 EU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모양새다.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젠틸로니 총리와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젠틸로니 총리와 함께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3월 4일 총선이 예정돼 있다. 로마/AFP연합뉴스

‘매파’로 돌아선 드라기...ECB도 글로벌 긴축 동참

〈유럽중앙은행 총재〉

“경기회복 걸림돌 작아졌다” 양적완화 종료 가능성 시사

‘비둘기파’의 대명사였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매파’로 돌아서면서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대열에 합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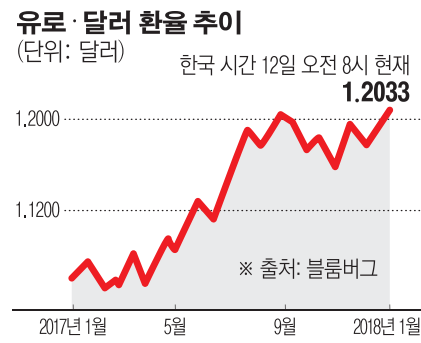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CB는 이날 공개한 작년 12월 회의록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펼쳤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일본 은행(BOJ)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긴축을 가속화하거나 기존의 팽창적인 통화정책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ECB도 이에 합류한 것이다.

ECB는 이날 회의록에서 “경제가 계속 확장되면 올해 초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나 선제 안내 관련 문구가 재논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ECB가 이후 나 타날 수 있는 혼란을 피하려면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초를 변경해야 한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전문가들은 올해 9월까지인 채권 매입 프로그램, 즉 양적완화의 종료 가능성을 ECB 회의록이 높였다고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의도 축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ECB는 “올해 글로벌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작아졌다”며 “무억 전정에 대한 불안은 이전보다 줄었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지만 첫 번째 관문도 통과했다”고 진단했다.

캐피털이코노미스트는 “ECB의 정책 재논의는 우리가 가정했던 것보다 빠르다”며 “당초 우리는 9월 이후에도 ECB가 채권 매입 규모를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줄이는 등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으로 봤지만 ECB는 이 프로그램의 종료를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CB는 이르면 오는 1월 25일 회의에서 양적완화와 관련해 확대나 축소 등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아예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유로화의 최근 상승에 금리인상에 대한 선제 안내가 강화될지는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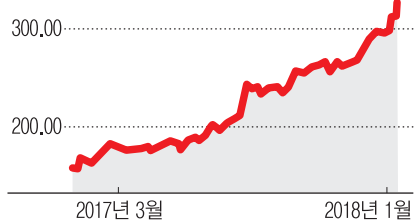
ECB 회의록이 ‘매파’ 경향을 보였다는 투자자들의 해석에 유로화 가치는 이날 올랐다.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의 1.19달러대에서 1.20달러 선으로 뛰었다. 영국 파운드화와 일본 엔화에 대해서도 각각 0.5% 상승했다.

독일 국채인 분트(Bund)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5bp(bp=0.01%포인트) 오른 0.5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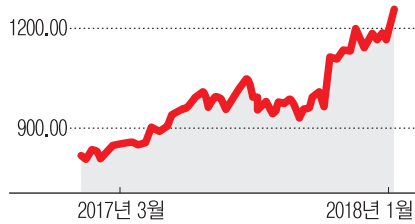
보잉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블룸버그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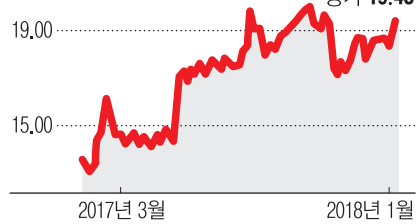
아마존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블룸버그통신



트럼프에 미운털 박혀라, 주가 폭등할지니

지난해 親트럼프 기업보다
反기업 지수 상승률이 두 배

“보잉기 주문 취소하겠다

아마존 베조스, 탈세했다

NYT는 가짜뉴스다”

트럼프가 공격해도 승승장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운털이 박힌 기업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승승장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리숀츠웰스매니지먼트의 베리 리숀츠 회장은 1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반(反)트럼프 기업과 친(親)트럼프 기업을 나누어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리숀츠 회장은 반트럼프 기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는 ‘오물청소 지수(Drain the Swamp Index)’라는 이름을, 친트럼프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는 ‘올리가르히지수(Oligarch Index)’라는 이름을 각각 붙였다.

두 지수의 성적은 예상밖이었다. 오물

청소지수는 한 해 동안 42% 뛰었고, 올리가르히지수는 20% 오르는 데 그쳤다. 주식시장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은 그다지 작용하지 않은 셈이다.

오물청소지수의 대표적인 종목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다. 보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주가는 1년간 2배가량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보잉의 747기종 에어포스원 납품가가 너무 비싸다며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폈다.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때 걸렸던 새 에어포스원 구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나중에 보잉은 제작 비용을 낮추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마찬가지로 트럼프와 반목해온 아마존의 주가는 같은 기간 약 60% 상승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와 트럼프는 앙숙 관계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베조스가 언론을 이용해 탈세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당선되면 베조스가 소유한 워싱턴포스트(WP)는 없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베조스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베조스는 대선 때 WP 기자 20명을 동원해 트럼프 검증팀을 가동했

고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주변부부터 파괴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가짜뉴스’ 매체로 지목한 뉴욕타임스(NYT)의 주가는 작년 한 해 40% 올랐다. 디지털 구독자가 증가한 결과다.

한편 올리가르히는 정권과 결탁해 부를 축적한 신흥재벌을 뜻한다. 친트럼프 기업으로 구성된 올리가르히지수에 포함된 대표적인 업체는 엑손모빌이다. 엑손모빌 CEO 출신인 렉스 틸러슨이 미국 국무부 장관 자리에 오르면서 엑손모빌은 친트럼프 기업으로 분류됐다. 비슷한 이유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근무했던 골드만삭스도 친트럼프 기업으로 꼽힌다. 국가경제위원회(NCE) 위원장을 맡은 게리 콘도 골드만삭스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재직할 경력이 있다.

리숀츠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가루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지만, 다행히 폭풍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두 지수가 시사하는 점은 투자자들이 트럼프가 트위터로 비난하는 기업의 주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테크 인사이트

VR 장갑, CES 2018서 공개

가상현실은 그림의 떡? 만질 수 있는 장갑 나왔다

가상현실(VR)의 세계를 손으로 만지거나 느끼게 해주는 신기술이 나왔다. 바로 VR 장갑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중인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네덜란드 스타트업 센스글로브가 VR 장갑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고 CNN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센스글로브의 VR 장갑을 끼면 VR 헤드셋으로 보는 물건을 잡을 수 있다. VR 화면에 보이는 물건을 들면 손에서 무게가 느껴진다. 손에 든 유리병이 부서지면 장갑이 진동한다. 공을 던지고 받거나 블록을 쌓을 수 있다.

VR 헤드셋이 사용자를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면 VR 장갑은 눈으로만 보던 가상현실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지금은 기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건의 질감까지 구현하지는 못한다. 사용자의 손 크기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수정이 필요하다. VR 장갑보다 손이 작은 사용자는 “실제로 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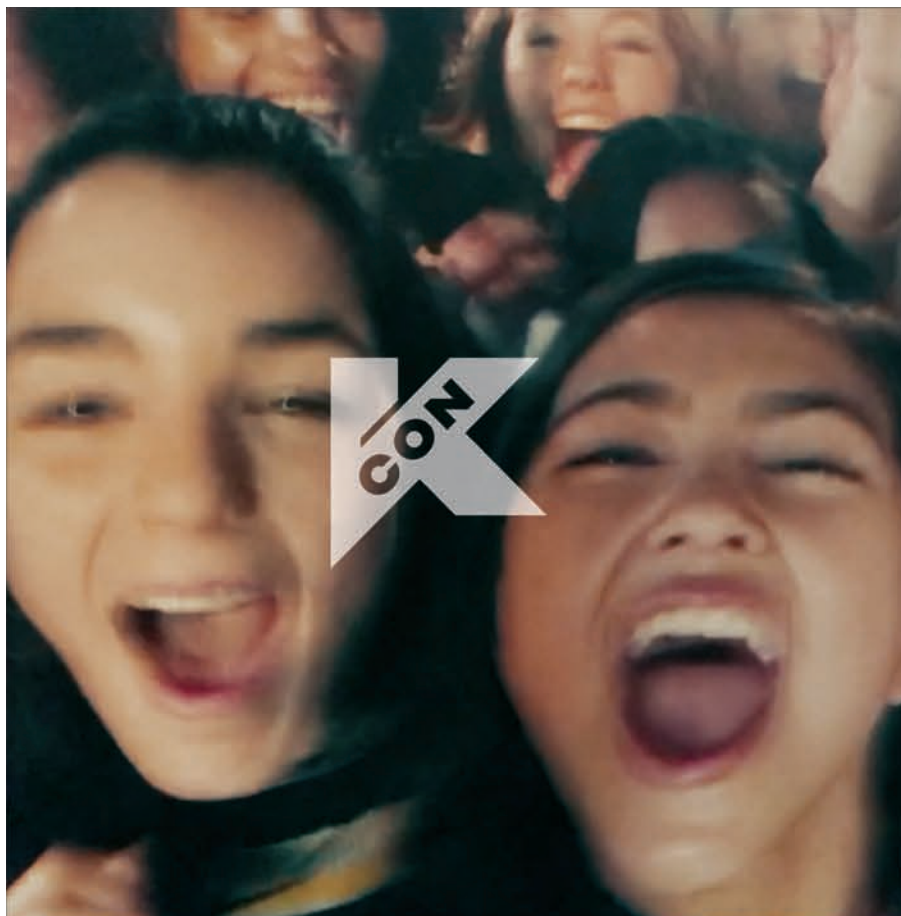


센스글로브가 개발한 VR 장갑.

실제처럼 무게감 느껴지고 진동
VR 장갑 스타트업 늘어 성장세

피고 있는데도 화면에서는 이상한 위치에서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기스 텐 버터 센스글로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의 비전은 물체의 모양과 밀도, 질감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의 기술은 1%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CJ가 만드는 것은 KOREAN MADE LIFESTYLE

자동차, TV, 휴대폰, 건설, 섬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음악, 드라마, 푸드, 체험, 스타일까지
CJ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세계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만듭니다
LIVE NEW



가상화폐·자율주행 문제 많아 사전 대비

디지털포렌식연구소 세운 최성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비트코인 해킹 못한다지만 거래소 계좌·지갑 돈 빼돌릴 우려
자율주행車도 사고나면 과실 다텈날 듯… 디지털 추적 필요

“앞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갑니다.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의 데이터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걸 분석해내야 하죠. 포렌식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야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법률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세종디지털포렌식연구소를 설립하고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와 포렌식 증거분석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로펌이 이 분야 연구소를 만든 건 세종이 처음이다. 세종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 주력하게 된 배경에는 최성진(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있다.

최 변호사는 3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만나 “아직 우리나라가 관련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선뜻 투자하기 애매한 상황이지만, 몇 년 후엔 확연히 달라질 수도 있다”며 “민사소송에는 전자소송이 도입됐고 디지털 증거를 받아들이는 데도 의욕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해킹 문제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에 있어서도 예상되는 문제가 많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멀티장부를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해킹이 안 된다고 알려졌지만, 저장소 계좌나 거래소 지갑을 해킹해서 고객 돈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 이럴 때 관련 서버를 가져와서 접근 IP 등을 추적해서 어디서 공격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책임을 놓고 다툴이 예상된다.

최 변호사는 “기존 법체계와 현재 새롭게 대두되는 형태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다”며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비트코인 등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쉽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검찰, 경찰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청 등 정부기관에서도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역시



최성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3일 “영업비밀 침해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의심직원의 컴퓨터 등을 다른 직원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동근 기자 foto@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과학수사를 담당하는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기술이 유용하게 활용하는 분야 중 하나는 영업비밀 침해사건이다. 최근에는 문제인식이 확대된 대기업보다는 중견·중소기업 사건이 많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영업비밀로 분류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이 생겨

도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접근 권한, 잠금장치, 보안카드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침해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의심 직원의 컴퓨터 등을 다른 직원이 손대지 못하게 하고, 무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박은비 기자 silverline@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일자… 한성숙 대표 “외부 의견 듣겠다”

일부 검색어 법령따라 제한

“명예훼손 방지 위해” 해명

한성숙(사진) 네이버 대표가 최근 검색어 삭제 논란에 대해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직접 해명하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1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정보 탐색 서비스들은 사용자와 세상 모든 정보의 연결이라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에 맞닿아 있다”면서 “관심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네이버의 철학에도 바탕을 두고 있어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관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

서는 법령에 근거해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한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검색어가 음란, 도박, 마약 등 불법 정도이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연예인의 이름+육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을 제한한다”며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 비방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문제가 되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구했고, 명예훼손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존중을 지켜야 할 의무를 판단한 바 있다. 그는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사용자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인격권에

는 상충되는 면이 있어 보는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은 인터넷 기업이 안고 있는 숙제”라며 “검색어 제의 규정을 외부에 공개하고 기관의 검증을 받으며 그 결과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검증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가 2016년 10~11월 삭제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 키워드가 상당수 포함됐으며, 이 중 일부는 삭제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대승 대한조선학회회장 취임

조대승(사진) 부산대 교수가 제34대 대한조선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19년 말까지 2년이다.

신임 조대승 회장은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조선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선박해양연구소 책임 연구원을 거쳐 현재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네이버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관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에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박찬욱(사진) 서울대 교육부총장(정치외교학부)이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제20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박 신임 회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과 한국정치학회 회장, 한법제판소



으로 하는 민간 학술단체다. 한국 사회과학의 진흥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인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이승기

◆서울시교육청 △지방부이사관 승진 △총무과장 정석은 △정책·안전기획관 안은용 △교육시설관리본부장 최영식

◆한국무역협회 △실장 전보 △감사실장 배길수 △비서실장 정희철 △홍보실장 김병훈 △통상지원단장 박전일 △인사총무실장 김고현 △재무관리실장 고재수 △무역정책지원실장 심준석 △산업정책지원실장 박준 △신선장산업실장 조성현 △FTA활용지원실장 이동복 △FTA원산지지원실장 한창희 △차이나데스크실장 송형근 △아중동실장 김용태 △미구주실장 장상식 △화원정책실장 박철용 △현장지원실장 심남섭 △회원서비스통합센터장 이권재 △무역전략실장 이미현 △전략시장연구실장

성백웅 △글로벌연수실장 심상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승욱 △충북지역본부장 전진우 △브뤼셀지부장 박연우 △두바이지부장 김기현 △이집트 승진 △FTA활용지원실장 이동복 △북경지부장 김병우 △상해지부장 서욱태 △2직급 승진 △MICE추진실장 이상준

◆BC카드 △부문장 전보 △경영기획총괄장 신광석(부사장) △마케팅부문장 김진철(전무) △상무 승진 △가맹점사업단장 박상범 △본부장 전보 △경영지원본부장 채병철(상무) △경영기획본부장 조현민(상무) △프로세싱본부장 김경주(상무) △실장 승진 △상품운영실장 박복이 △실장 전보 △업무지원실장 김규형 △마케팅기획실장 이혁 △상품개발실장 김원권

◆삼성웰스토리 △승진 △전무 김한규 △상무 박한진

◆삼성물산 △상사부문 승진 △부사장 정주성 △전무 박성민 △조성기 △상무

김용덕 원광희 이창원 정호영 △건설부문 승진 △부사장 이병수 정찬범 최남철 △전무 강병일 김원수 백종택 송규중 △두바이지부장 김기현 △이집트 승진 △FTA활용지원실장 이동복 △북경지부장 김병우 △상해지부장 서욱태 △2직급 승진 △MICE추진실장 이상준

◆포스코건설 △전무 승진 △엔지니어링본부장 한기원 △경영지원본부장 HR지원실장 김희대 △상무 승진 △에너지사업본부 에너지사업실장 조태재 △경영기획본부 투자전략실장 최경환 △건축사업본부 LCT사업단 PD 정희민 △경영기획본부 사업관리실장 이경섭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영업실장 이태서 △상무부 승진 △경영기획본부 투자전략실 해외사업개발그룹장 변종익 △엔지니어링본부 EIC ENG 실 EIC융합ENG그룹장 심우현

△경영지원본부 HR지원실 조직인사그룹장 김유석 △플랜트사업본부 플랜트사업실 포항 3호로 3차 개수 현장 PM 이규철 △인프라사업본부 인프라사업실 철도사업단장 온상운 △건축사업본부 건축사업실 중부사업단장 김구기 △엔지니어링본부 Chief PCP 이용준

◆롯데건설 △승진 △전무 석규성 △상무 윤해식 현호석 박창근 △상무보A 배재학 김돈산 김학용 김중수 이병준 백용석 △상무보B 신만수 서태근 김성근 김성철 정광수 이택기 황규석 심원택 이명희 신경석 송대의

◆롯데로지스틱스 △승진 △상무 김공수

◆롯데글로벌로지스 △승진 △상무보A 남도기 △상무보B 최명호 장기룡

◆롯데네슬레코리아 △승진 △상무보A 백승훈

◆대흥기획 △승진 △상무 구분옥 △상무보A 김경호 △상무보B 이승조 김수진

CEO 미팅·글로벌 포럼 참석... 에너지 광폭 행보 김영훈 회장

〈대성그룹〉

김영훈(사진) 대성그룹 회장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UAE 정부 및 2019 아부다비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 핵심 인사들을 만났다.

12일 대성그룹은 세계에너지협의회(WEC) 회장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이 세계적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하는 ‘제2회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패널리스트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핵심 인사들을 만나 총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앞서 UAE 바라카 원전을 방문해 원전 건설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또한, 김 회장은 12, 13일 양일간 열리는 애틀랜틱 카운슬 글로벌 에너지 포럼에 참석한다. 이 행사에는 최근 방한한 캄보디아 알 무바라크 UAE 행정청장과 수하일 빈 모하메드 알 마스루이 UAE 에너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올해는 △에너지 전환의 지정학적 관계 △전기산업 분야 급성장과 변화 △글로벌 에너지 분야의 투자 및 금융 △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여성의 역할 등을 핵심



시안 패널로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UAE 정부와 민간분야 인사들과의 만남 후 “세계적인 신유류임에도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을 에너지 믹스에 대폭 확대하는 등 에너지산업을 과감하게 개편하려는 UAE의 열정과 원대한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UAE 등 중동지역 국가의 자원과 자본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류정훈 기자 jung216@

“편 가르기 보도 오해받는 상황, 언론의 과제”

관훈클럽 창립 61주년 기념식… 박승희 65대 총무 취임

관훈클럽이 창립 6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관훈클럽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61주년 기념식과 박승희 65대 총무(중앙일보 선데이이편집국장)를 비롯한 2018년 관훈클럽 임원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전·현직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언론인들의 연구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은 8일 새 임원진을 확정했다. 박총무를 비롯해 서기 성기홍(연합뉴스 정치에디터), 기획 권대열(조선일보 논설위원), 회계 정용관(동아일보 이슈엔 피플팀장), 편집 권태호(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씨 등으로 꾸려졌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관훈토론회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1주년 기념식에서 박승희 65대 총무가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최, 언론 전문 계간지 ‘관훈저널’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박총무는 “오늘의 한국 언론은 레거시 미디어의 생존을 위협받고 편 가르기 보도로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는 언론의 큰 과제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효성 신입사원, 노을공원 숲 가꾸기 봉사활동



효성의 52기 신입사원들이 첫 대외활동으로 봉사를 진행했다. 12일 효성 신입사원 300여 명과 임원 15명이 오후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에서 ‘사랑의 숲 가꾸기’ 봉사에 나섰다. 신입사원들과 임원들은 숲 가꾸기의 일환으로 노을공원 내 매립지 사면에 식물을 나무를 기르는 나무자람터의 배수로 정리 작업과, 나무를 심을 예정인 땅이 겨울에 얼지 않도록 낙엽으로 덮어주는 낙엽분토 작업을 했다.

사진제공 효성

부음

▲주찬식(삼성증권 수석)·용식(동서농장 실장)·현식(유로진남성의원 직원) 씨 부친상, 김순수(서울시청 사무관) 씨 장인상 = 11일, 전주 효자장례타운, 발인 13일 오전 8시 30분, 063-227-4812

▲이주호(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지원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씨 부친상 = 11일,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53-200-2500

▲김철환(전 서울신문 시설관리국 설비팀 부장) 씨 장모상 = 11일, 공주의료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41-962-1444

▲이남수(전 영진약국 대표약사) 씨 별

세, 최영환(전 동양경제신문 기자)·숙향(전 동구여중 교사) 씨 모친상, 김윤덕(전 동아일보 경영지원국 기획위원) 씨 장모상 = 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 02-3410-6908

▲배옥자씨 별세, 신동철(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씨 모친상 = 10일, 대구 경북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30분, 053-200-6145

▲이광우(영동포유통 전무) 씨 별세, 이미숙씨 남편상, 정민·지연(MGF 소싱차장)·선은씨 부친상, 이효상(부평 셀미병원 신경외과장)·안병규씨 장인상 = 1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02-3410-6920



신달자의 핫살과 바람

시인

단힌 문을 여는 손

성격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 나이가 들어도 변하는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신체적인 단점은 변화하는 훈련을 해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성격은 백 번 노력하면 아주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체적인 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듯싶다. 손이 그렇다. 여자는 손이 아름다워야 모두가 아름답다고 했다. 섬섬옥수(纖纖玉手)는 아니더라도 민망할 정도는 아니어야 하는데 영 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살다보면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 참 많다. 악수도 손으로, 모형을 그릴 때도 손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손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강의를 할 때도 습관적으로 손동작을 많이 하는 편이다. 밥도 손으로 먹고 차(茶)도 손으로 마신다. 남의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부릴 때도 남이 바라볼 확률이 높다.

가능한 한 손을 앞으로 내미는 일을 줄이지만 손이란 주머니 안에만 있다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무의식적으로 손은 나오고 행동하고 밖으로 나와 일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러니 남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손의 관절이 툭툭 불거져 나와 내 나이보다 두 배는 늙어 보인다. 좀 예쁘게 보이려고 마사지도 하고 문질러도 보지만 별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 못생긴 손에 나는 상(賞)을 준다. 2017년을 보내는 12월 31일 일기에 내가 나에게 주는 상으로 내 손을 꼽았다. 1년 동안 책임을 완수했고 참 소수가 많았다는 것이 상의 이유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에게 주는 상을 받는 게 '손'이었

던 적이 많았다. 아픈 손으로 인생을 아프지 않게 하려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 왔던 것이다. 지금까지 40권 분량의 책을 썼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손글씨로 썼다. 일기를 썼고 편지를 썼고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논문도 몇 편 썼다. 말하자면 많은 문을 열어 내가 들어가게 해 준 주인공은 내 손이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이기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으로도 더 성장하듯 모양새가 아름다운 것만 행복이 아니라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것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가끔은 내 손인데 내가 눈물겨울 때가 있다. 그러하기에 당연하지만 집의

문을 손이 열고 집의 문을 손이 닫는다. 자동차의 문도, 사무실의 문도 모두 내 손이 열고 닫는다. 헤아릴 수 없이 밥을 먹었지만 다 내 손 덕분에 배를 채웠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쁨 하나가 커피인데 그 술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한 것도 다 내 손 덕분이었다. 너무 아픈 내 손이 날 먹여주고 살리고 있는 것이다. 좀 쉬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손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손이 더 크게 날 살게 한 것은 따로 있다. 살아오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에 장애(障礙)도 많았고 내 인생 앞에는 매듭도 많았다. 그 장애를 끄덕거리며 옆으로 옮기면서 걸어가게 한 것은 내 손이었

고 쉬지 않고 영근 매듭을 풀어 주었던 주인공도 내 손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단힌 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단힌 문을 여는 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 손은 상을 받았다. 많은 시간을 땀 때리고 앉아 있는 내 본성(本性)보다 앞서가는 손이 고맙다. 내 발 또한 그러했으리라.



대방로

남 형 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를 지지하는 여론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부는 파기 선언이 가져올 외교 무대의 후폭풍을 고려해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부 입장을 일면 이해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를 위한 전혀 다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전 정부의 12·28 위안부 합의는 1965년 한일협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들의 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무슨 권한으로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은 위안부 합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국제법적 문제는 차치(且置)하고 소녀상 이전·철거 합의는 또 다른 문제다.

소녀상의 정확한 명칭인 '평화의 소녀상'은 김윤성·김서경 부부 조형예술가의 작품

소녀상 이전 이면합의는 원천 무효

이다. 소유권은 정대협(挺對協·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있지만, 저작권은 이들 부에게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저작권권을 갖는다.

소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視線)이다. 시선은 대상을 전제로 하므로 소녀상의 가장 중요한 예술적 가치는 일본대사관 건너편인 바로 현재의 장소에 있는 셈이다. 장소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작품을 장소 특정적 예술(site specific art)이라 한다.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을 떠나 미술관 등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순간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소녀상 작가는 소녀상이 현 위치에서 이전당하지 않을 권리를 저작권으로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전경자 화백의 붓을 쥐게 만든 '미인도' 위작 논란은 전 화백 사후에도 지속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내 작품이 아닌 것에 내 이름을 붙이지 말게 할 권리' 침해 문제로 서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된다. 이렇듯 예술

가에게 저작권은 재산권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배상청구권 같은 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을 제3자인 한·일 양국 정부가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가 처분할 수 없는 것을 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합의한 것이니, 이면 합의는 법적으로 말하면 불능(不能) 계약인 셈이다. 예컨대 하늘의 별을 따 주겠다고 한 것이나 노예가 되었다고 한 것은 물리적 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으로, 이런 합의는 애초에 무효인 계약이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합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전 요청에 작가가 거부하면 정부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일본 정부 또한 우리 정부에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소녀상 문제로 양국 간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 일본 정부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닌 '위안부상'으로 부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예술작품의 이름을 유지하는

것은 저작권권의 한 내용으로, 일본 저작권법에도 동일한 것이 있다. 거북하다 하여 작품 이름을 함부로 바꿔 부르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일국의 정부가 공식적으로 할 일은 아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소녀상을 음란물로 둔갑시킨 사례가 있었다. 야만의 극치다. 미키마우스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한 침대에서 혼음(混淫)하는 장면 같은 것은 디즈니사가 철저히 법적으로 막아내고 있다. 동심(童心)에 상처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녀상에 대해 공감은 못할망정 외설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하며, 일본 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적 공분을 낳은 위안부 협상의 이면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소녀상 작가의 동의 없는 이전 합의는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파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 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만이 소녀상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한 톨



함께하는 마음

울거울에도 평화의 소녀상에는 누군가 놓고 간 따스한 마음이 쌓여간다. 정성이 가득 담긴 손뜨개 양말, 따뜻한 담요. 저마다의 정성을 담은 선물들... 9일 정부는 한·일 외교부가 2015년 12월 28일 합의한 위안부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그날 이후 더 큰 상처를 입고 하루하루를 보냈을 할머니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길 바란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온라인 모저모

가상화폐거래소 유빗 파산신청 철회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외부 해킹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자 파산 신청에 돌입한다고 공지했지만 돌연 파산 신청이 아닌 회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선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빗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유빗 측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밝혔지만 해당 보상안은 물론, 제대로 된 보상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재개하는데 대해 의혹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유빗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해킹당하지 않은 현금에 홈페이지에 출금 신청 시 72시간 내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인의 경우 7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선 거래 재개 후 6개월간 유빗의 자체 가상화폐인 보상 토큰을 지급하고 이후 18개월에 걸쳐 이를 재매입해 보상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빗은 지난달 19일 외부 해킹으로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를 도난당해 17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빗 측은 파산 신청에서 회사 매각으로 방향을 바꾼 데 대해 "이번 결정으로 기존 경영진이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존 대주



주들의 지분은 소각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네티즌은 유빗의 이 같은 결정이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아이디 'kam****'은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회사 먼저 다시 운영하겠다는 너희들 돈은 벌써 천천히 갚을게"의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라고 황당해했다. 네이버 아이디 'Null****'은 "아무리 봐도 이 모든 게 자작극 같다. 분명히 유빗 측은 전체 피해 코인이 17%라고 했는데 왜 보상은 70%만 해주나. 17%만 피해를 봤으면 80% 이상은 기본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아이타올(주)

Happy
New
Year
2018

크로커다일 캐슬세면타올

www.itowellmall.co.kr

대표번호 02) 755-1091

이슈 & 인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

新기술은 동전의 兩面과 같이 어두운 측면도 가지고 있어 중장기적인 건전성 규제 도입 초기부터 정부에 요구했는데...

해외 자금이동·外人 거래제한 작년 9월 첫 규제 발표 이후 김치프리미엄 2배 이상 뛰어 시장 참여자 혼란만 키운 셈

사회혁신·디지털 트렌드 전문가

김진화(43)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인터넷과 제조업, 영리와 비영리, 국내외의 경계를 오가며 사회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기업가다. 오르그닷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 공익 법인 타이드 인스티튜트를 공동 설립했다. 사회 혁신 및 디지털 트렌드 전문가로 여러 방송 및 매체에서 활약했고, 활발한 기고와 강연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패션 등의 사회 혁신적 방법론을 소개해 왔다. 2009년 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고, 2012년 유엔지구환경정상회의의 한국 대표단으로 참가, 글로벌 청년혁신가 10인으로 선정됐다. 2013년 한국비트코인거래소 코빗(Korbit)을 공동 설립한 후 일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약하고 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 공동대표는 2013년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란 책으로 국내 1호 비트코인 관련 서적을 낸 우리나라 비트코인 선구자로 통한다. 10일 오후 광화문 인근 커피숍에서 만난 김 공동대표는 최근 각종 언론매체와 기관, 기업 등 강연 일정이 빼곡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중간 빈 시간에 금융당국과 국회의원실 등에서 오는 전화를 받으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에게 가상화폐 등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업계가 “규제하지 마라”는 것 아나
-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이 규제 위주로 돌아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업계가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법적으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1년 6개월 전부터 얘기를 해왔다. 그때부터 제도 마련에 힘썼다면 지금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규제는 필요하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낯선 기술의 잠재성을 잘 활용하는 사회는 어두운 측면은 잘 제어를 하고, 밝은 측면은 키워내는 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단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아몰랑’ 즉, 문지마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단기적이고 대증적(對症的)이다.”
- 가상화폐에 대한 문지마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는데
“모든 규제는 억압하는 역할과 끌어올려 부각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불법적인 것들에는 채찍을 휘두르고, 잘하는 시장 플레이어(참여자)들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시

장 플레이어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조급한 마음에 채찍만 휘두르다 보니, 오히려 정부의 채찍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시장의 반발 심리를 키웠다고 본다. 시장 플레이어도 정부가 언제 채찍을 휘둘러지 모르니 한탕주의에 빠지게 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인(가상화폐 약칭)들이 오른 것은 ‘싼 것을 사서 크게 벌어보자’는 심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장기적인 전망과 시야를 갖지 않으면 시장 플레이어가 한탕주의에 빠지게 된다. 지금의 혼란과 한탕주의적인 풍토는 정부가 오히려 더 키워온 것이다.
단적인 예로 9월 29일(가상통화 법정부 TF 1차 발표일)부터 정부가 앞뒤 안 가리고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였다. 그때 비트코인이 500만 원 이하, 이더리움이 30만 원대였다. 그런데 이후 불과 몇 개월 새 비트코인은 2500만 원, 이더리움은 200만 원을 넘기도 했다. 이게 다 시장의 반응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을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이 당시 10~20%였는데, 지금은 40~50%가 됐다. 이게 모두 정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다.”

美, 선물시장 기능 통해 정상화
- 김치프리미엄이 커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정부 규제 이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 환전 투자 이외에 가상화폐를 국내로 옮겨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가상화폐가 많았다. 국내로 가져온 코인을 달러로 환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높지는 않았다. 자유시장의 원리는 차익거래의 기회가 생기면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들로 좁혀지게 돼 있다. 이전에는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제한적이거나 가능했기 때문에 김치프리미엄이 좁혀졌는데, 정부가 원화로 빠져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아서 최근 크게 벌어졌다. 지금은 외국인 거래도 제한돼 들어오는 것조차 막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갈라파고스’가 된 형국으로, 이 격차가 해소 안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경우 어떤가
“미국은 시장에서 비정상이 발생하면 시장 시스템을 통해 이것들을 없애는 것



2013년 국내 1호 비트코인 관련 서적인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을 내기도 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중·장기적인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1년 6개월 전부터 얘기해왔다”며 “지금의 혼란과 한탕주의적인 풍토는 오히려 정부가 더 키워온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 굉장히 능수능란하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정상적이라면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선물시장 기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시스템을 통한 정상화 원리가 잘 갖춰진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한국블록체인협회 발족을 앞두고 있는데, 투자자와 업계의 기대가 크다. 협회가 정부와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동등한 정부와 많이 협의해 왔고, 국회와 논의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어 이전까지의 성과들이 무효화되고, 오히려 퇴행하는 것 같아 걱정된

다. 그래도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스템화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규제안을 만들었고, 잘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시장에 알 수 없는 정보들이 혼탁하게 퍼지고 있다. 시장의 정보를 필터링하는 역할, 즉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투기 조장 우려··자극적 광고 중단
- 현재 협회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결국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자율규제 시장 형성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가
“그렇다.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규제를

내든 자율규제안이 뿌리내려야 한다. 민간이 중심이 돼서 건전한 시장 질서와 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 래야 산업의 나쁜 점이 최소화되고, 기술의 잠재력이 우리 사회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회사사 간 이해관계 조율은 잘되고 있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 거래소들이 광고를 많이 준비했었는데, 협회가 투기심리를 조장하는 광고는 중단하자고 제안해 자극적인 광고는 사라졌다. 신규 코인 상장도 올바른 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 생태계 보조 역할만
-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과 어떤 연관성을 갖나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표상돼야 하는냐는, 답은 ‘인터넷시대의 가치가 애플리케이션 단(端)에 모인 것’이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과 아마존, 구글 이런 기업들이다. 블록체인 이코노미(경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단이 아닌, 그 밑의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통신규약·플랫폼) 단계 가치가 모인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팻(Fat) 프로토콜 이콘’이라고 한다. 인터넷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단의 가치가 IT기업들의 주식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기업이 없으니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가치가 집중된다. 이제까지와의 경제 모델 자체가 다르다.”
- 앞으로 블록체인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나
“현재는 멀리 스테이지(기술 초기 시대)인데, 앞으로 인터넷과 결합하면 성격이 많이 바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자율주행차,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과 블록체인이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본다.”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것이 가능한가
“모든 것을 정부가 한다는 것은 시대적 오적인 발상이다.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정책으로 기술발전을 이룰 수 없다. 그랬다가 우리가 큰 코를 다친 게 2007년 무렵 정부 주도로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만들어 해외 교류가 단절된 사례다. 정부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드는 데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한다. 해외 많은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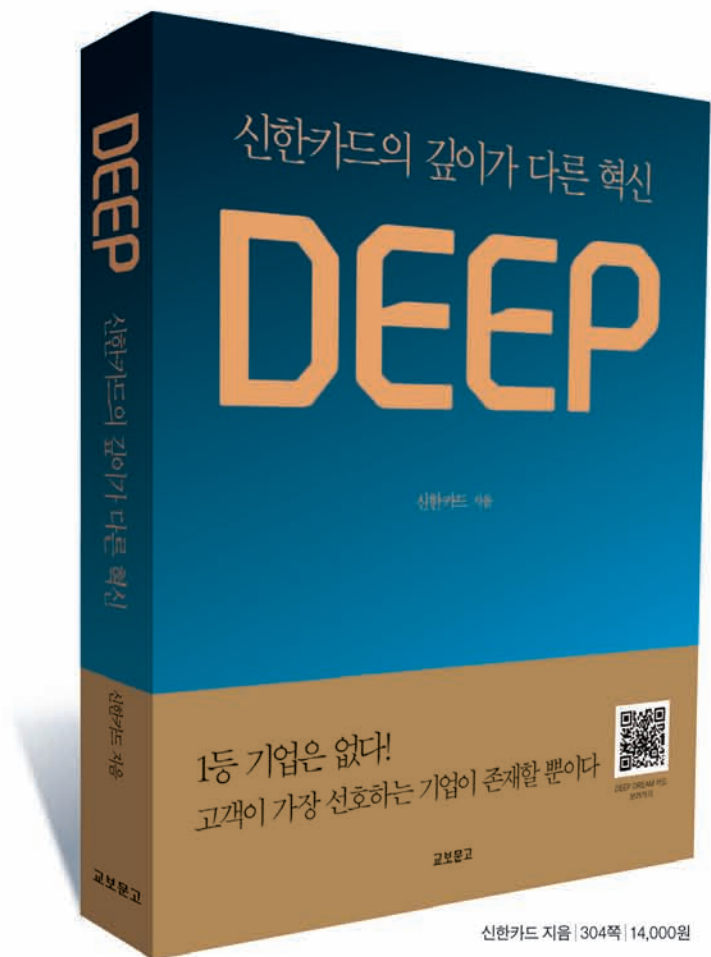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철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社 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논설실 (02)799-6701 기업금융부 (02)799-2665 자본시장부 (02)799-2664 사진팀 (02)799-2646	정치경제부 (02)799-2663 산업1부 (02)799-2648 경제경제부 (02)799-2643	정책사회부 (02)799-2612 산업2부 (02)799-264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구독실 (02)799-268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www.ete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4차산업혁명의 시대,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카드업계 1등기업 신한카드가 공개하는 금융의 미래

- 2,200만 고객 데이터라는 압도적 빅데이터
- 업계 최초로 설립한 빅데이터센터
- IoT의 시작점 카넥티드 카 커머스
- 생체인증 핀테크로 열리는 카드 없는 사회
- 인공지능과 딥러닝 기술 예방하는 사이버 금융범죄……

더 안전하고 편리한 소비생활, 사용자 개개인에 딱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깊이가 다른 혁신의 철학 'DEEP'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간다!



※ 전국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신한카드 지음 | 304쪽 | 14,000원

KEB하나은행,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함영주 은행장,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 감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9.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3주간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의제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기 념회'를 가립식.을 가졌다 밝혔다. 11일 오전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하여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기홍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기획사무장진, 신태웅 출구

국가대표팀 감독 및 선수단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앞으로 다양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었다.

특별히 이날 행사에는 러시아 월드컵 최후예선을 거쳐 아시아 최초 월드컵을 9회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한 신대웅 축구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단(김남일 감독, 최기, 차두리 코치, 염기훈 선수 등)이

[illegible]

0.5%의 30%에 달하는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나은

이제부터는 **www.이름.에**로
만들어진 공을
만들기 시작
할 것입니다

도
올림픽
기업어
은행인
대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 후원 은행, **KEB 하나은행**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평창은
하나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개국 6,500 여명의 고객과 100여개의 해외 지점, 글로벌 대고객 2018 경영 실적추진은행으로 선전하고 있다. 11월부터 29일까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에 맞춰 (2차분) 공식 예약접수 및 대회 대회 공식 후원인인 대한체육회 후원자금 관련 대금 납부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 영업점 설치, 조직위원회의 관계자, 임무, 외국환거래 업무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후원·반대비 디자인, 통장과 대한민국 종합선수권 금리를 제공하는 수신사업, 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이벤트트를 진행

대상 기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인프라 구축/개선 관련 기업,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등으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대출금액 대비 최대 100%) 및 보증료(보증 금액 대비 최대 0.5%)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로비에 체험존과 전시존 마련

또한, 강원도 소재 기업 중 건강식품, 구조
용 신소재 및 스포츠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이
이번 협약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되어 강원도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공식후원은행으로
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무궁 중추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부흥을
위대차 체결 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김정태 하다줄
국가대표선

하나금융
루지스
선

지 등
을 함께
의 선전
하나금
림픽인
그들
행해
201
대한
트

...는 동계 스포츠 종

대한민국
동시 산재 행

하나금융그룹은
올림픽의 성공적
진행에
「백두대간산행 행사
지나 11월 11일부터
동만 하나금융그룹
환풍인 모두 하나
한 이반 행사하
열리는 경창 동계
위한 온 국민의 열

한 단계 도약하길
실지로 성공 기원
2년 2018 평창 동계
개최를 기원하기 위한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전개하는 사회공헌
이 캠페인 기간 중 개최
면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원을 담고자 마련됐다.

KEB하나은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대회 체험관 개관

협영주 KEB하나은행, “성공적인 대회 개최 위한 밑거름될 것”
공식후원은행 KEB하나은행을지로 본점 로비에 체임존, 전시마련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한 동계 올림픽 대표적 홍보 명소로 활용
KEB하나은행 공식성인정 받아 “평창지속가능성 파트너”로 선정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축본점에서 27일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양주 KEB하나은행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 곳 홍보관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명소로 활용되어 성공적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속본진1층로비에 마련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하우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기금 내내 운영된다.



오전

KEB하나은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패럴림픽대회 체험관 개관

협영주 KEB하나은행, “성공적인 대회 개최 위한 밑거름될 것”
공식후원은행 KEB하나은행을지로 본점 로비에 체임존, 전시마련
범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한 동계 올림픽 대표적 홍보 명소로 활용
KEB하나은행 공식성인정 받아 “평창지속가능성 파트너”로 선정

KEB하나은행 을지로 신축본점에서 27일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양주 KEB하나은행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 곳 홍보관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국민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홍보명소로 활용되어 성공적 대회 개최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속본진1층로비에 마련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하우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기간 내내 운영된다.



사라오름의 설경 사진제공 제주관광공사

누가 빛은 작품일까, 제주도 좋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겨울 제주

별다른 계획 없이 찾아도 부담 없고, 언제 가도 설레는 곳 제주. 주말을 이용해 제주를 찾는다면 자연 속에서 겨울 제주의 아름다움을 들여다볼 수 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한라산과 크고 작은 오름에 올라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 힐링이 따로 없다.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서귀포는 1월 평균 기온이 5도 정도로 따뜻한 겨울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특히 13일에는 인공지능(AI) 알파고와 치열한 대국을 펼쳐 주목받은 이세돌과 중국 커제의 경기가 제주에서 열리는 만큼 경기 장소에 마련된 현장 응원석을 찾아 응원 이벤트에 참여해보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제주관광공사와 모두투어가 소개하는 겨울 제주여행 명소를 소개한다.



13일 이세돌과 커제(중국)의 바둑대국이 펼쳐질 제주 해피호텔앤리조트. 사진제공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天惠 자연 간직한 '사라오름' 눈꽃등반... 겨울동굴·감굴따기 체험

내일 해비치호텔서 이세돌 vs 커제 '세기의 對局' 무료관람 행운도

◇한라산의 눈부신 비경 만끽... 겨울 눈꽃산행 명소 '사라오름' = 한라산 성판악 등반코스 남측에 위치한 사라오름은 한라산 정상까지 고된 산행을 하지 않더라도 활짝 핀 눈꽃을 볼 수 있는 겨울 눈꽃산행 명소다. 아이스링크처럼 변한 산정호수 위에 살포시 쌓인 눈, 그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이 새하얀 겨울옷을 갈아입어 절경이 따로 없다. 오름 분화구에 물이 고여 있는 산정 화구호인 사라오름은 여름 장마철에는 데크(Deck)까지 물이 찰랑거리지만 겨울에는 겨울 왕국으로 변신해 아는 사람만 방문하는 비밀의 숲으로 불린다.

특히 자연 보호를 위해 16년간 출입이 통제되었다가 2010년 입산이 허가돼 훼손이 적어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성판악 등산로 입구로부터 5.8km 지점에서 사라오름 방향으로 600m만 가면 된다. 왕복 4~5시간 소요되는데, 호수를 둘러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어 걷기에 편하다. 눈길 등산이므로 아이젠 등 안전장비는 필수다.

◇칼바람 피한 따뜻한 겨울동굴...한림공원 쌍용굴, 만장굴, 일출랜드 미천굴, 다희연 동굴 카페 = 겨울 제주의 칼바람을 피해 따뜻한 곳을 원한다면 동굴을 찾는 것도 좋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굴은 탐험하기 좋은 곳이자 겨울



겨울에도 감굴 따기 체험이 가능한 감굴농장. 사진제공 모두투어

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이다.

한림공원에 있는 협재굴과 쌍용굴은 용암동굴이지만 석회동굴로 변해가는 복합 동굴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연중 11~15도를 유지하는 만장굴은 총 길이 7.4km의 용암 동굴로 내부 형태와 지형이 잘 보존돼 있다. 일출랜드의 미천굴은 빛으로 색을 입혀 동굴을 걷는 내내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꽃자왈에 있는 동굴을 이용해 만든 다희연 제주 꽃자왈 동굴 카페는 자연 동굴을 감상하며 쉴 수 있다.

◇굴빛으로 물든 남쪽 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

감굴 따기 체험 = 자녀와 함께 제주를 찾는다면 겨울에 빼놓을 수 없는 '감굴 따기 체험'을 경험해보길 추천한다. 서귀포에는 감굴 따기는 물론 농촌 생태 체험, 감굴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감굴 농장인 최남단체험감굴 농장이 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감굴을 직접 따서 마음껏 먹어보고 지인에게 직접 수확한 감굴을 선물하는 특별한 경험을 즐길 수 있다. 또 감굴 따기 체험과 카페, 감굴 나무 사이에 다양한 포토존까지 마련된 '아날로그 감굴밭'도 겨울철 제주 여행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숙박은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이세돌 vs 커제 바둑 대격돌 응원전 = 이번 주말 제주를 찾는다면 숙박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가 어떨까. 13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한·중 바둑 고수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2018 해비치 이세돌 vs 커제 바둑대국'이 펼쳐진다. 경기는 오후 2시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며, 호텔 1층 로비아트리움에서는 생중계와 공개 해설을 진행해 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대국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돌과 커제는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는 현존 바둑 최고수. 이번 대결 역시 관심이 높아,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다. 또 이번 바둑 대국을 기념해 뷔페 레스토랑 섬모라에서는 동일한 식재료를 가지고 한식과 중식의 조리법을 각각 선보여 이를 비교하며 맛볼 수 있는 재미를 더했다.

김민정 기자 mj@

식품의 속살

Z자형 커팅·5.5mm 높이... '식감의 과학'으로 탄생한 감자칩

국내에서 처음으로 Z자형 커팅 방식을 도입한 감자 스낵이 출시 두 달 만에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오리온 '감자산맥'은 생감자를 뽕쥬한 산이 이어지는 독특한 모양으로 깊고 두껍게 썰어 튀겨내 바삭한 식감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오리온에 따르면 감자산맥은 출시 이후 두 달 동안 약 2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제과업체에서 신제품이 월 매출 10억 원을 넘으면 히트상품으로 평가받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한 것이다.

오리온은 최근 젊은 층이 새로운 식감을 강조한 스낵을 많이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기존에 없던 모양의 감자 스낵을 개발했다. 기존 생감자 스낵과 차별화한 식감을 선보이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Z자형 커팅 방식을 도입하고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시 오리온 '감자산맥' 강렬한 바삭함 주기 위해 1년여 연구 단면적·높이·두께까지 꼼꼼한 테스트 출시 2개월만에 23억 매출 '히트상품'

인을 구축했다.

길고 짧은 지그재그 형태의 커터는 서로 다른 높이에서 오는 바삭한 식감을 배가시키고 과자의 겉이 부서질 때 나는 소리는 씹는 재미를 더한다. 또 산맥의 '골짜기' 모양마다 양념이 깊고 넓게 배어들어 더욱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오리온은 500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며 입안에서 '와그작' 하고 씹히는 강렬한 크런키함을 주는 식감을 1년 넘게 연구했다. 그 결과 감자칩 단

면의 높이를 기존 웨이브형 감자칩 대비 2배 이상 높은, 국내 최고 수준인 5.5mm로 구현했다. 또 감자칩의 두께를 0.05mm씩 미세하게 조정하는 기술을 적용해 감자의 두툽한 식감을 살리며 감자 본연의 맛을 구현할 수 있는 감자칩의 황금 높이와 두께를 개발했다.

감자산맥은 짭짤한 감자칩에 통후추로 감칠맛을 더한 '감자산맥 통후추소금맛'과 매콤달콤한 소스가 입맛을 돋우는 '감자산맥 핫윙맛' 두 가지 맛으로 즐길 수 있다.

신현미 오리온 과장은 "감자산맥은 꼬북칩, 초코칩, 초코파이 등 새로운 식감의 신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식품업계의 '식감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오리온이 야심차게 선보인 신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고객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제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날씨와 생활

高보습 멀티 밤

머리부터 발끝까지 촉촉함을 오래오래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고보습 멀티 밤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밤 타입의 장점은 크림 타입 제품보다 촉촉함을 더 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것. 특히 '멀티 밤'은 얼굴뿐만 아니라 팔꿈치와 뒤꿈치, 무릎, 손톱, 모발 등 다양한 부위에 건조할 때 수시로 사용 가능하며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보습을 줄 수 있어 높은 편의성을 자랑한다.

겨울철은 특히 멀티 밤의 활용도가 한층 높아진다. 건조한 실내에서 피부 보습용으로 사용하거나 네일 케어, 헤어 밤, 립 밤 등 다방면에 활용 가능하다.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과 섞어 사용하면 윤광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도 있다.



에뛰드하우스 '지니 멀티 밤'

보습과 영양 동시에 '光彩코팅'

에뛰드하우스는 '지니 멀티 밤'을 출시했다. 지니 멀티 밤은 환절기 푸석한 피부에 보습과 영양을 부여하는 광채 코팅 멀티 밤으로, 머리부터 발 끝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기본적 기능 외에도 헤어 트리트먼트, 영양 크림, 각질 관리, 제모 등 여러 상황에 적합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수딩 밤'

세안 후 나이트 팩으로도 활용

바비브라운의 스테디셀러인 '엑스트라 수딩 밤'은 고농축 제품으로 메이크업 후 발라주면 물광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세안 후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 충분한 양을 펴 발라 나이트 팩으로 활용하면 다음 날 마사지를 받은 듯 피부를 가꿔준다.

록시팡의 '퓨어 시어버터 EFT'는 비타민 E가 함유된 시어 버터가 건조하고 손상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준다. 겨울철 운동 시 거친 피부를 위한 보호용 페이스 마스크로도 활용 가능하다. 뜨거운 물을 담은 큰 그릇에 시어버터를 담은 작은 그릇을 넣어 살짝 녹인 후 사용하면 또 다른 감촉의 시어 버터를 즐길 수 있다.

닥터자르트는 '세라마이드 오일 밤'을 출시했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다섯 가지 세라마이드 복합체 '5겹 멀티세라'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에 편안한 보습막을 만들고 흡수되는 동백오일과 잇꽃씨오일이 더해져 보습을 더 확실하게 도와준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겨울철 멀티 밤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며 "짙은 히터 사용으로 건조해진 공간들로 인해 고보습 멀티 밤을 찾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착한아이는 그만... 이젠 내 음악, 내 마음대로”

인터뷰 가수 겸 배우 **이호원**

인피니트를 탈퇴한 이호원은 직업이 많다. 가수 겸 배우에, 최근에는 ‘모래시계’를 통해 뮤지컬 배우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덕분에 몸은 바쁘다. ‘모래시계’를 연습하면서 구내염이 다섯 개나 생긴 적도 있다. “나름 면역력이 좋은 편인데... 진짜 무리인 거예요.” 차분한 말투로 얘기를 이어가던 이호원이 씨익 웃었다.

불과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이호원은 ‘매일 전생하는 기분’이었다. ‘모래시계’ 연습과 MBC 월화드라마 ‘투깝스’ 촬영장을 오가던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진 항상 긴장한 상태였다”고 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공연이 무대에 오르고 ‘투깝스’ 촬영 분이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숨 돌릴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호원은 지난해 7년간 몸담고 있던 전 소속사 올림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왔다. 인피니트에서도 자연스럽게 탈퇴했다. 당시 이호원은 연예인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고도 전혀 후회 없었을 만큼 꿈이 확고했던 그는 “윗사람들의 결정이나 뜻에 의해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진짜 내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 고백했다.

인피니트에서 나온 이호원은 연예생활을 중단할 결심까지 했다. 단서로 활동하는 친구들과 춤 학원을 만들기로 하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다. 하지만 ‘노래’가 이호원의 발목을 잡았다. “진짜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그걸 못 해보고 (가수 활동을) 끝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반이 100장밖에 안 팔리더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악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가수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목격담이 들리던 사람”인 이호원은 3개월 동안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당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그가 결심을 굳히게 된 건 가수 에릭남의 조언 덕분이다. 에릭남은 이호원에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그것을 택했을 때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공책에 써봐라”고 했다.

이호원은 가장 먼저 ‘노래’와 ‘팬’을 적었다. 돈, 명예, 인기는 포기해도 상관없었다.

이호원이 지금의 소속사 글로리아

3개월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적어봤죠.

돈, 명예, 인기는 포기할 수 있는데
팬과 음악만은 포기 못하겠더라고요.

스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한 건 그래서다. “대형 가수 기획사에서 연락이 있어요. 음반은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A&R 팀이나 프로듀서 진이 갖춰져 있으니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못하게 될 것 같더군요. 진짜 제 음악을 하려면 가수 회사를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글로리아스엔터테인먼트의 김재철 대표는 이호원에게 “어차피 나는 음악을 모른다”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이호원은 여기에 “팬들과 만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앞서 3개월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다. 김재철 대표는 이 역시도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다시 주어진 삶에 이호원은 감사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도 ‘모든 걸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는데, 이 정도 결과에 연연하는 게 웃기지 않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심기일전한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다닌다는 점이다. 덕분에 지인으로로부터 얼굴이 편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호원은 “새해가 됐는데 ‘늘어 보인다’는 얘기를 듣지 않아 다행”이라며 웃었다.

“예전에 저는 그냥 예쁜 인형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늘 좋은 얘기를 하며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을 얘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착한아이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제 마음을 많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

인피니트 탈퇴後 ‘모래시계’로 뮤지컬 배우 변신

음악에 드라마 ‘투깝스’ 촬영장 오가며 ‘一人三役’

“내가 없어지는 느낌”... 한때 은퇴까지 고민했지만

“하고 싶은 음악해라”... 새 소속사 응원에 다시 무대로

사진 고아라 기자 iknow@·일러스트 사유진 기자 yisa2018@



소속사 떠난 티아라 티아라 뺀 소속사

결그룹 티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31일 전 소속사 MBK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종료됐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 28일 ‘티아라’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요구하는 출원서를 특허청에 냈다. 현재 심사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경우, 티아라 출신 멤버 4명(지연, 효민, 은정, 큐리)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티아라 이름으로 발표한 노래로 공연할 때에도 MBK 엔터테인먼트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표권 출원 소식이 전해진 이후 MBK 엔터테인먼트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연, 효민, 은정, 큐리와 전속계약 종료를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칭했지만 이들이 실제로는 상표권 출원을 준비하며 표리부동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효민이 “멤버들은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것”이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통해 팀 존속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MBK 엔터테인먼트가 이들의 앞날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혐의가 씌워졌다.

지난해 전속계약 종료한 MBK엔터
특허청에 ‘티아라’ 상표권 출원서 내
“멤버 재구성 고의방해했다” 비난에
“비용·시간 들인 우리 브랜드” 반박

낮선 풍경은 아니다. 2016년 그룹 비스트 출신 5인(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전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떠날 당시에도 ‘비스트’의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들과 전속계약 종료를 1년여 앞두고 ‘비스트’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해 2016년 1월 등록을 마쳤다. 같은 해 10월 회사를 떠난 5명의 멤버들은 새로운 소속사에 등지를 둔 이후 ‘비스트’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기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이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동안 멤버 이름 앞 글자를 딴 ‘윤용양이손’으로 활동하던 이들은 결국 지금의 팀명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티아라의 경우 ‘비스트 사태’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관계자는 “제2의 비스트 사태로 보는 것은 억측”이라며 “비스트 사태는 멤버 5인이 향후 활동 거취를 표명한 뒤 이름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다. 티아라 출신 네 멤버는 아직 거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르게 보자면 MBK 엔터테인먼트를 주축으로 티아라가 재구성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기도 하다. 효민은 SNS를 통해 “앞으로도 ‘티아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네 명이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K 엔터테인먼트는 상표권 출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획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과 달리 업계 관계자 중에서는 기획사의 상표권 출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한 관계자는 “전속계약 종료료 3일 앞두고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기획사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하나의 브랜드를 만든 만큼 상표권 요구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대중문화평론가는 “가수나 팬 입장에서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기획사 측은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양측이 계약을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원만한 합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



‘2017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베스트커플상을 수상한 박나래(왼쪽)와 기안84. 사진제공 MBC

나래♥기안 ‘꿀케미’... 이러다 ‘우결’ 짝는 거 아냐?

결혼공약서 전현무-한혜진 썸까지 관심
MBC ‘나 혼자’ 러브라인에 시청률 상승

지난해 12월 29일 방영된 ‘2017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만큼이나 많은 궁금증을 불러온 것은 개그우먼 박나래와 웹툰 작가 기안84의 관계일 것이다. “대상을 받으면 기안84와 결혼하겠다”는 박나래의 공약은, 베스트커플상 수상 후 “박나래가 용기 내서 먼저 말했는데 내가 빼는 건 아닌 것 같다. (중략) 몇 년 살아보고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는 기안84의 화답에 비하면 자라리 평범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진심과 농담을 오가는 이들의 러브라인은 요즘 MBC ‘나 혼자 산다’를 채우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나 혼자 산다’가 높은 인기를 얻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16년 10월부터 ‘나 혼자 산다’의 연출을 책임지고 있는 황지영PD는 출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활동분

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신설하고 강화했다. 그는 지난해 비즈엔터와 만난 자리에서 토크 코너를 통해 출연자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케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재미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방송인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 사이의 ‘썸’이나 박나래, 기안84의 러브라인은 이 같은 ‘케미’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이벤트다. 방송을 통해 가까워진 출연자들은 방송 외에도 사적인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았고, 이것이 다시 방송 안에서 비춰지면서 전과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박나래가 자신의 집에 기안84와 그의 후배 김충재 씨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거나 전현무와 한혜진이 함께 등산에 나서는 것은, ‘혼자 사는 삶’에서 발생하는 일상 중 하나일 뿐 의도적으로 연출된 설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가 ‘우리 결혼했어요’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기우에 가깝다. 내용에 대한 호불호는 나눌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안

84가 박나래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수상 퍼포먼스보다 이들을 보며 경악하는 전현무와 한혜진의 모습에서 더 큰 재미가 만들어진다. ‘나 혼자 산다’는 여전히 출연자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을 조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혼자 삶’에서 관찰되던 재미가 최근에는 이들 공동체에서 더욱 자주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 달라졌을 뿐이다.

MBC ‘무한도전’으로 대표되는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대가 저물면서 ‘나 혼자 산다’와 같은 관찰 예능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 리얼 버라이어티가 각 출연자에게 고유한 캐릭터를 부여해 그 안에서 재미를 만들어냈다면, ‘나 혼자 산다’는 출연자의 실제 삶과 이들 간의 친목을 통해 그들의 진짜 성격과 매우 흡사한 캐릭터를 창조해내고 있다. 지금 ‘나 혼자 산다’는 관찰 예능이자, 동시에 리얼 버라이어티의 두 번째 버전이 되고 있다. 관찰 예능이 범람하고 있는 예능계에 이것이 또 한 번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좀 더 지켜 볼 일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

고현정 전매특허 카리스마 캐릭터 기대반 '사회적 물의' 일으킨 男優 주연에 우려반

SBS 새 수목극 '리턴'에 쏠린 눈

'리턴'이 안방극장 상륙 준비를 마쳤다. 고현정과 이진욱의 상반된 복귀 명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BS 새 수목드라마 '리턴'(극본 최경미, 연출 주동민, 제작 스토리웍스)은 도로 위 의문의 시신이 발견되고 살인 용의자로 떠오른 4명의 상류층에 대해 TV 리턴쇼 진행자이자 변호사 최자혜(고현정 분)가 촉발 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 출신 형사 독고영(이진욱 분)과 함께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는 범죄 스릴러다.

이 작품은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년 만에 돌아오는 고현정의 컴백 작품이자, 성 추문 사건이 있던 이진욱의 첫 브라운관 복귀작이기 때문이다.

고현정은 카리스마는 물론이고 역할에 자연스럽

살인사건 진실 파헤치는 범죄 스릴러

高卒 흡수저 변호사 최자혜役 고현정

여류 캐릭터에 다양한 서사 '기대감'

게 동화되면서 그만의 캐릭터를 완성해왔다. 그런 그가 '리턴'에서 맡은 역할은 '상류층 현대의 살인 스캔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비밀을 가진 고졸 출신 흡수저 변호사이자 TV '리턴쇼' 진행자인 최자혜다. 늦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수석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판사가 됐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나선다. 우연히 TV '리턴쇼' 진행자를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 변호사가 된다.

충분히 흥미로운 캐릭터다. 다양한 서사도 담겼고, 반전의 여지도 있다. 전작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우리네 인생의 평범한 딸의 모습으로 분했다면, 이번 캐릭터는 기존에 고현정이 힘을 발휘해 온 여류 캐릭터다.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리턴'이 이



그림작 신미영 기자 win823@



이진욱, 성폭행 혐의 피소 후 첫 안방극

무명의 처분받았지만 항소심 이어져

사건 진행 중인데 '성급한 복귀' 의견도

진욱의 복귀작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진욱은 2016년 7월 14일 30대 여성 A 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곧바로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뒤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진욱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이후 이진욱은 2016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 씨의 고소건은 종결됐지만, 이진욱이 A 씨를 고소한 무고죄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A 씨는 이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A 씨의 항소심 재판에 이진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해당 공판의 선고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사건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이진욱의 복귀가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여론은 각양각색이다.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는 의견과 어찌됐건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성급한 복귀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첨

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극중 이진욱이 맡은 역할은 한번 쏜 사건은 해결하고야 작성이 풀리는 타고난 강과 범죄에 집착하는 근성을 지닌 강력계 '꼴통 형사' 독고영 캐릭터다. 법적 송사에 휘말린 인물이 형사 역을 맡는 것에 대한 반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어찌됐건 주시위는 던져졌다. 최근 성 관련 추문에 휩싸였던 배우 박시후와 이민기가 각각 KBS2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과 tvN 월화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한 만큼 이진욱의 컴백이 어떤 성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 있다. 고현정의 복귀작이라는 점에서 '리턴'은 이미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진욱의 복귀라는 변수가 '리턴'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현정, 이진욱 외에도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정은채, 윤종훈 등이 출연하며 1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김예슬 기자 yeye@

‘이방인’들의 빛바랜 ‘아메리칸 드림’

JTBC ‘이방인’ 추신수·서민정 등 타향살이 그려
성공 속에 감춰진 인종차별·소외감·고독 담아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다. 수많은 이방인들은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미국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모든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이민자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롭고, 차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환상이 전 세계에 만연했다.

jtbc ‘이방인’은 미국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 야구선수 추신수, 방송인 서민정, 피아니스트 전우예권의 타향살이를 그리며 실현된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 준다.

먼저 ‘17년차 이방인’ 추신수는 첫 방송부터 압도적인 재력을 보여줬다. 1200평 규모의 대저택에는 수영장에서 체력 단련실, 가족용 극장까지 없는 게 없다. 차고에는 슈퍼카가 눈에 띈다. 토끼 같은 자식 3남매는 모난 곳 없이 밝고, 아내 하원미 씨와도 신혼 같은 금슬을 자랑한다. 일반인이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가정이다.

그러나 ‘이방인’은 추신수가 이룩한 아메리칸 드림의 반짝이는 면만을 비추지 않는다. 그가 슈퍼카를 타는 이유가 단적인 예다. 추신수는 “이방인이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과거 비교적 좋지 않은 차를 오랫동안 타고 다녔을 때 동료 선수에게 무시당했던 경험을 털어 놓았다.

2006년 MBC ‘가집없이 하이킥’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서민정은 이듬해 돌연 결혼을 발표하고 남편과 미국으로 떠났다. 막 스타덤에 올랐던 그의 결혼 소식은 당시에도 적잖은 충격을 남겼다.

10년이 넘도록 연예계를 떠나 있었던 서민정은 ‘이방인’을 통해 처음으로 가족과의 일상을 공개했다. 서민정의 가족은 살인적인 물가로 소문난 뉴욕 한가운데, 30억 원을 호가하는 집에 거주 중이다. 미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헬스장을 소유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걱정이라고 없는 듯 웃으며 산다.



JTBC 예능 ‘이방인’에 출연 중인 야구선수 추신수 가족(위)과 방송인 서민정 가족.

하지만 서민정이 이처럼 환한 미소를 짓기까지의 고생 역시 만만치 않았다. 뉴욕 생활에서 백인들은 서민정을 은근히 따돌렸다. 일상이 된 인종차별 속에서 그는 사무치는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다. 몇 년은 집 밖을 잘 나오지도 못했다.

이처럼 추신수와 서민정이 살고 있는 이방인으로서의 삶, 그 명암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을 깬다. 평범치 않은 행복 뒤에는 평생을 뒤흔치는 고통과 범인(凡人)이 할 수 없는 노력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만큼 나라를 향한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그 바깥에 반드시 환상의 네버랜드가 펼쳐진 것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방인’이 유명인들의 호화로운 인생을 비추면서도 위화감 대신 흥미를 유발하는 이유일 것이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

주목할만한 新作 예능

토크 고수 원석 간 배틀 올림프 ‘토크몬’
XtvN ‘슈퍼TV’ ‘오늘도 스웿’ 등 다양



신작 예능 올림프 ‘토크몬’(왼쪽)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사진제공 올림프·SBS

새해를 맞아 신작 예능들이 쏟아진다.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모습을 보이는 정통 토크쇼부터 파일럿에서 정규 편성에 성공한 예능, 새 예능채널 론칭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다.

가장 먼저 안방극장에 선보이는 주자는 바로 올림프 ‘토크몬’(연출 박성혁 현문)이다. 연예계에서 토크 고수로 알려진 ‘토크 마스터’와 재야에 숨겨진 토크 원석인 ‘토크 몬스터’가 한 팀을 이뤄 펼치는 2인1조 토크배틀을 담는다.

‘토크몬’이 기대를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MC 라인업이다.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강호동, 이수근을 비롯해 정용화와 ‘재야의 토크 고수’ 홍은희가 진행자로 나선다. ‘썸총사’, ‘서울메이트’를 연이어 성공시킨 박성혁 PD가 선보이는 세 번째 예능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이유다.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아내들의 낭만일탈이라는 주제로 사랑받았던 SBS ‘싱글와이프’는 시즌2로 새롭게 재편됐다. ‘한 달에 한 번 아내DAY’라는 슬로건 아래 고생하는 아내에게 남편들이 파격적인 후가를 선사하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었던 ‘싱글와이프’는 새 시즌을 맞아 새로운 라인업을 내세웠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송 최초로 공개되는 아내들의 합류다. 개그맨 서경석의 ‘13세 연하 아내’ 유디솜과 배우 정만식의 아내이자 ‘일본 유학파 출신’ 연극배우 린다전이 새롭게 얼굴을

비춘다. 개그맨 정성호의 아내 경말음, 임백천 아내 김연주도 출연을 확정했다. 이밖에도 CCM 작곡가 출신 유은성과 결혼해 출산과 육아로 경력에 단절되었던 배우 김정화와 윤상, 심해진 부부 또한 합류한다. 17일 방송된다.

18일 첫 방송되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파일럿 방송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터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새로운 제보 최초 공개, 코미디언 강유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 세월호 유대군 단독 인터뷰 등 굵직한 이슈들을 선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정규 편성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그것이 알고싶다” 출신 PD들이 연출을 맡아 더욱 면밀해진 방송을 예고한다. 파일럿 당시 출연했던 ‘흑터뷰’ 코너의 강유미와 ‘아는 척 매뉴얼’ 코너의 타이리도 함께한다.

CJ E&M이 26일 새롭게 개국하는 오락전문 채널 XtvN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인다. 슈퍼주니어가 전면에 나서는 ‘슈퍼TV’를 시작으로 래퍼들의 리얼 힙합 야와 버라이어티 ‘오늘도 스웿’, 보아의 데뷔 후 첫 리얼리티 ‘키워드#보아’, 글로벌 로맨스 리얼리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등이 편성을 마쳤다. 본격적인 오락 콘텐츠를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yeye@

황제의 귀환...‘타이거 咆哮’ 보고 싶다

타이거 우즈, 작년 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대회로 복귀전 성공
26일 ‘우승 텃밭’ PGA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출전...첫 우승 도전

올 시즌 ‘골프지존’ 타이거 우즈(미국)의 포효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지난해 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 대회를 통해 복귀전에 성공한 우즈가 2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690만 달러)에 출전한다. 1년 만에 출전하는 우즈의 정규투어 첫 우승 도전이다.

대회 개최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은 우즈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우즈는 정규투어에서 이골프코스를 먼저 선택했다. 우즈는 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만 8승을 올렸다.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만 4년 연속 우승을 포함해 7차례나 우승컵을 안았다. 2008년 이 골프코스에서 개최된 US오픈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우즈는 아마추어 시절인 16살 때인 1992년 이곳에서 열린 닷산오픈에서 출전한 이후 25년간 메이저대회 14승을 포함해 PGA투어 통산 79승을 올렸다. 그는 “리비에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며 “아주 오랫동안 리비에라에서 경기를 하지 않았다. 이곳은 주니어, 아마추어, 토너먼트를 하는 선수로서 경기를 해왔던 곳이며 꿈을 이룬 곳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즈는 토리파인스 말고도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이 열리는 베이힐 클럽,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개최지 파이어스톤 컨트리클럽도 좋아한다. 우즈는 이 두 곳에서도 각각 8승씩을 올렸다. 이들 3개 골프코스도 토리파인스처럼 우즈에게 ‘텃밭’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이벤트 히어로 월드 챌린지에 출전했던 우즈는 4일 동안 한 번도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4라운드 72홀을 완주했다. 특히 드라이브 거리를 300야드 이상 날리며 전성기 때의 샷 감각을 발휘했다.

우즈는 지난해 1월 미국 프로 골프(PGA)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오픈에 출전했으나 컷 탈락했다. 유러피언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에서는 1라운드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했다. 지난해 4월 허리 수술 이후 우즈는 필드 복귀를 위해 재활과 치료에 전념했다. 우즈는 올 시즌 정규투어 데뷔전을 앞두고 쉬는 동



안 낚시를 하며 망중환을 즐겼다. 그는 감태공으로 변신해 1m가 넘는 대형 물고기를 낚았다고 자랑했다. 우즈는 “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며”라며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그는 1975년 12월 30일생으로 지난해 12월 30일로 만 42세가 됐다.

우즈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2월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퍼시픽 팰리세이드 리비에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제네시스(총상금 720만 달러)에도 출전한다. 이 대회는 우즈재단이 주관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더스틴 존슨의 골프용품

- 우드-테일러메이드 M4 3H(프로젝트 X HZRDUS Black 6.5 95X 샤프트), 16.5도
- 아이언-테일러메이드 P-790(3번 아이언 트루템퍼 다이내믹 골드투어 이슈 X100 샤프트), 테일러메이드 P-730 DJ Proto(4번부터 피칭웨이, 트루템퍼 다이내믹 골드투어 이슈 X100 샤프트)
- 웨지-테일러메이드 밀드 그라인드(52, 60도 KBS 투어 블랙 130X 샤프트), 테일러메이드 Hi-Toe(64도 KBS 투어 블랙 130X 샤프트)
- 퍼터-테일러메이드 스파이더 투어 블랙
- 볼-테일러메이드 TP5x
- 골프웨어-아디다스골프
- 골프화-아디다스골프 투어360 2.0 부스트

‘430야드’ 괴력의 장타자 더스틴 존슨 新무기는? 테일러메이드 M4 드라이버 ‘13억 잭팟 샷’

새해 첫 우승한 괴력의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의 신무기는 무엇일까.

8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 주 마우이 섬 카팔루아의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52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630만 달러)에서 우승한 존슨. 최종일 4라운드에서 무려 8타를 줄여 합계 24언더파 268타(69-68-66-65)로, 2위 존 램(스페인)을 8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우승상금 122만 달러(약 13억 원).

코스가 유난히 길어 장타자에게 유리했던 코스다. 존슨의 특기인 장타력으로 4일간 이글을 3개 골라냈고, 4일간 파5홀 16개에서 이글 1개, 버디 10개를 잡아냈다. 특히 파5홀에서 티샷한 뒤 다른 선수들은 우드로 2운을 시도했으나, 존슨은 아이언으로 2운을 노렸다. 1라운드 최장타는 405야드, 2라운드 414야드, 3라운드 419야드, 4라운드 430야드를 기록했다. 최종일 12번홀(파4 홀·430야드)에서 티샷한 불이 핀과 30cm에 붙어 이글을 골라냈다. 4일 동안 드라이버 평균 거리

는 296.20야드였다.

존슨은 이번 경기에서 테일러메이드가 2018년 새롭게 선보이는 M패밀리의 ‘M4 드라이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4 드라이버는 튜닝을 통하여 정확한 비거리를 제공하는 M3드라이버에 비해 높은 관용성과 비거리를 강조하면서 디자인을 차별화한 클럽이다.

M4 드라이버는 2017년 M2의 비거리와 관용성을 뛰어넘기 위해 새롭게 트위스트 페이스, 해머 헤드를 장착했고, 지오쿠스틱 디자인을 개선해 타구음과 타구감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트위스트 스페이스는 테일러메이드가 이루어낸 차세대 기술로 전통적인 드라이버 페이스 디자인을 재구성한 기술이다. 새로운 M3와 M4 드라이버 모두를 특징짓는 트위스트 페이스는 골퍼들의 가장 흔한 실수, 특히 하이 토우와 로우 힐 임팩트에서 비롯되는 실수에 대응하기 위한 테일러메이드의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김수현의
fun한 골프레슨

많은 골퍼들이 하체를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힘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체가 중심이라 물론 움직이면 안 되겠지만 좌우로 밀리는 스웨이는 막고, 회전은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무릎을 너무 고정시키려고 하면 몸이 경직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 회전이 원활히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체를 고정시켰는데, 볼의 정확성과 비거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체의 움직임이 과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스윙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동작을 보면 오른 무릎을 너무 고정시키려고 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고 회전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중 이동도 전혀 없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너무 하체의 움직임을 고정하려고 했던 골퍼는 오히려 백스윙 시에 오른쪽 골반을 뒤로 빼주고 오른 무릎을 살짝 펴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오른 무릎을 살짝 펴주면 오히려 좌우로 밀리지 않고 몸의 회전각이 더 편하고 쉽게 이

백스윙時 오른쪽 무릎 펴줘 회전각 살려야



백스윙 시 왼쪽 사진처럼 오른 무릎을 살짝 펴주면 좌우로 밀리지 않고 몸의 회전각이 더 편하고 쉽게 이뤄져 스윙 스피드도 더 많이 나고 정확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

왼바른 사진 동작과 같이 휩쓸 동작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윙 스피드도 더 많이 나고 정확성 있는 임팩트를 만들게 되

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오른 무릎을 갑작스럽게 펴는 것이 아닌 몸이 편하게 회전할 수 있는 정도만 펴주어야 합니다. 겨울을 보면서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어떤 느낌 정도 펴면 좋을지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연습 스윙으로 몸에 익혀 준 후에, 실제 볼을 치면서도 같은 느낌이 들도록 연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는 몸을 좌우로 돌리면서 다리는 걷는 움직임을 취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몸을 좌우로 바를면서 제자리에서 걷다 보면 좌우로 밀리지 않고, 체중 이동도 한 느낌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편하게 돌렸기 때문에 무릎이나 다리가 과하게 고정되지 않고 편하게 되는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몇 번 연습해 본 다음 클럽을 잡고 제자리걸음하며 스윙도 해 보도록 합니다.

네이버 1번 골프레슨 교습가



김부기의
골퍼와 눈건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건수는 한국인 10만 명당 992건으로 2012년부터 연속 6년간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60대 이상부터 빈발하는 노인성 안질환이다. 백내장 때문에 시야가 흐려져 그 좋아하는 골프를 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 불편이 크다. 나이가 들수록 빈발하지만 최근에는 40~50대 환자들도 늘었다.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되고 야외활동으로 인한 자외선 노출과 눈의 피로가 잦아진 탓이다.

백내장은 우리 눈에서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하고 딱딱하게 굳어 빛이 수정체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골퍼와 같은 취미생활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크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골프 성적이 떨어지고 책이나 영수증 등을 보기 어렵다.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는 등 사고도 잦아진다. 주된 원인은 노화이며, 외상이나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자외선은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노화를 가속한다.

시니어 골퍼 백내장 예방, 자외선 차단이 우선

백내장 초기에는 눈이 침침하고 빛과 사물이 퍼져 보인다.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희미하거나 눈부심 등 증상이 생긴다. 색상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며 근시, 복시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된다. 또한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주맹증(晝盲症)이다. 어두운 곳보다 밝은 곳에서 사물이 더 잘 보이지 않는 증상이다. 말기에 이르면 동공이 흰색으로 변하고, 계속 방치하면 녹내장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최악의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해 약물치료로 진행을 늦추거나, 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전한 수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먼저 수술 전 자신의 난시 여부를 정확하게 검사받아야 한다.

백내장 수술은 각막을 2.2~2.8mm 정도 절개한 뒤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한다. 각막을 절개하면서 각막의 인장력(안구모양을 유지하는 힘)이 달라져, 각막이 마치 럭비공처럼 찌그러지며 난시가 새로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다. 난시 축과 절개 위치를 고려해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는 펌도 로 레이저를 이용한 단일공(單

一孔) 수술이다. 보통 백내장을 수술할 때는 안구에 구멍을 세 군데 뚫어야 한다. 하지만 각막을 통과하는 펌도 로 레이저와 수정체를 눈 속에서 돌리면서 빼내는 리블라 테크닉을 이용하면 구멍 하나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막 손상을 줄일수록 수술 후 빛 번짐 우려가 줄고 회복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평형염색 사용 여부다. 백내장 수술 중 수정체 전방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점탄물질을 사용한다. 하지만 수술 후 점탄물질이 눈 속에 남아 있으면 안압 상승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물과 가장 흡사한 평형염색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소 자외선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겨울이라고 해도 자외선이 가장 심한 오후 12시부터 3시 사이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면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이용해 자외선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선글라스를 고를 때는 ‘UV400’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는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다. 렌즈의 색상은 선글라스알을 통해 눈이 보이는 정도인 75~80% 정도의 농도가 적당하다.

온누리스마일안과 원장

박인비 클럽 ‘책시오X’ 출시

〈텐〉

책시오가 20년 만에 10번째 클럽인 ‘책시오 X(텐)’을 선보였다.

던롭스포츠코리아(대표이사 홍순성)는 일본 시장에서 17년 동안 판매 점유율 1위를 지켜온 프리미엄 클럽 책시오 신제품 클럽을 공개했다.

이번 출시한 책시오X의 핵심기술은 트루 포커스 임팩트이다. 이는 헤드 페이스의 타점 분포를 최대한 좁혀 장타율을 높인 스마트 임팩트 샤프트와 스윗 스팟을 극대화한 에너지 임팩트 헤드의 혁신적인 기술을 융합한 결과물이다.

책시오X는 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하이브리



드, 아이언 모델을 출시했다. 수준 높은 기량을 원하는 골퍼들을 위해 미야자키 샤프트를 장착한 모델도 동시에 내놓았다.

트루 포커스 임팩트 기술은 기본적으로 골퍼의 스윙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 신기술 적용을 통해 타점 분산을 최소화하고 정타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미국에 전지훈련을 캠프를 차리고 시즌에 대비하는 박인비는 책시오X 포지드 드라이버와 포지드 아이언을 사용 중이다. 박인비는 3월 1일 개막하는 HSBC 싱가포르 여자오픈부터 시즌을 시작한다.

안성찬 골프대기자 golfahn58@



최초의 생명보험사로서
고객의 삶과 함께 한 **한화생명**

숫자가 아닌, 느낌과 경험으로
함께 생각하는, 유연한 소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에서

이제,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융을 하는 이유, Lifepius



코스닥 문턱 대폭 낮춰 上場붐 일겠지만...

부실기업 제대로 걸러낼지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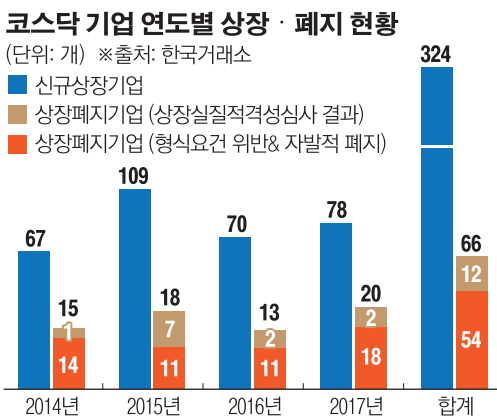
4년간 상장 324곳...상폐 66곳뿐
“중소·혁신기업 성장 취지 무색...
부실기업 진입 통로 확대” 지적

정부 '상장실질심사 강화' 밝혔지만
지난해 심사 통한 퇴출 단 2곳
전문가 “엄격한 퇴출기준 마련을”

정부가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자, 부실 회사를 걸러내는 자정 기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상장 요건을 낮춘 만큼 보다 엄격한 퇴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기업은 324곳이었으나, 상장폐지는 66곳에 불과했다. 신규 상장 기업수는 상장 요건이 완화된 2015년 109곳으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16년과 2017년 각각 70곳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이 기간 상장폐지 기업의 연간 평균은 16.5곳에 불과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중소·혁신기업성장을 기



지로 매년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의 진입 통로도 확대된 셈이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에서는 이익 미실현 기업의 상장을 지원하는 테슬라 요건의 확대와 증권사 환매청구권(풋백 옵션) 부담 완화, 코스닥시장 전용 3000억 원 규모 펀드 조성, 연기금 투자 유도 방안 등이 담겼다. 이번 조치로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2800곳이 추가로 코스닥 문턱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과거 부실기업이 속출했던 닛켄버블을 재현하지 않겠다고 상장실질심사 강화 등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은 상장 후 회계감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외부감사법

을 통해 걸러내겠다는 생각이다. 또 회계 감사의 견이 '비적장'에서 '적장'으로 바뀐 기업,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회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들을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상장폐지된 20곳 중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퇴출된 기업은 아이이와 케이엔씨글로벌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상장폐지의 대부분은 '형식요건 위반'이나 '자발적인 폐지'였다.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결정하는 상장실질심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여기에 있다. 증시 진입을 낮췄다면, 보다 강화된 퇴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신뢰성을 담보해야만 코스닥이 살아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증시 전문가는 “진입을 쉽게 해줬다면 결국 시장의 성패는 관리에 달린 것”이라며 “코스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퇴출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미국 나스닥의 경우 증시에 상장된 종목의 주가가 1달러를 밑돌 경우 바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코스닥도 상장 후 주가가 액면가를 밑돌 경우 상장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만, 운영 주체인 거래소가 퇴출에는 소극적이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개인·기관 ‘팔자’ 속 사흘 연속 내림세

이주의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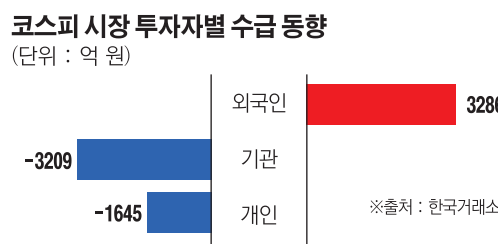
‘작년 4Q 실적’ 불안·기대 엇갈려
기관 3209억·개인 1645억 순매도
외인은 3286억 4거래일째 순매수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도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인과 기관이 단진 매물이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부터 1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유지하며 총 328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645억 원, 기관은 옵션만기일 영향 등으로 3209억 원어치를 각각 순매도했다.

이번 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현대차로 총 864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외에도 외국인은 △신한지주(745억 원) △포스코(698억 원) △OCI(687억 원) △LG화학(645억 원) △롯데케미칼(559억 원) △삼성엔지니어링(512억 원) △삼성화재(407억 원) △하나금융지주(283억 원) △KB금융(277억 원) 등을 집중 매수했다.

어닝시즌이 본격화한 가운데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인의 불안감과 외국인의 기대감이 코스피 수급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기관의 경우 9~10일까지 매수세를 이어갔으나, 11일 옵션만기일 영향으로 매도세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



코스피 시장 외국인 상위 순매수 종목
(단위 : 억 원)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순위	종목명	투자금액
1	현대차	864	6	롯데케미칼	559
2	신한지주	745	7	삼성엔지니어링	512
3	POSCO	698	8	삼성화재	407
4	OCI	687	9	하나금융지주	283
5	LG화학	645	10	KB금융	277

평가하면서 매수에 나선 것”이라며 “원화 강세 압박이 누그러들고 올해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는 수급 측면에서 부진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6644억 원), SK하이닉스(-1760억 원), 삼성전자우(-494억 원)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SK하이닉스(-2654억 원), 삼성전자(-1721억 원), LG전자(-547억 원) 등을 팔았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대형주에 매도세가 유입됐지만, 환율이 안정되고 11일 옵션만기일이 지나면서 코스피의 대형주 수급도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통합주가지수 ‘KRX300’ 섹터 비중 살펴보니...

‘IT·통신’ 36% ‘금융·부동산’ 13%로 절반 차지

내달 5일 선보이는 코스파·코스닥 통합주가지수 ‘KRX300(코리아익스체인지 300)’은 정보기술(IT)·통신서비스 업종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거래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KRX300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진한 IT·통신서비스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36%를 기록, 9개 산업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금융·부동산’이 13%, ‘자유소비재’가 12% 비중으로 각각 반영되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대표 업종으로 부상한 헬스케어의 경우, 그 비중이 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통합주가지수인 ‘KRX300’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우량기업 300종목으로 구성된

‘자유소비재’ 12% ‘헬스케어’ 6%順
9개 산업군 분류... 내달 5일 스타트

다. 300종목은 다시 △IT·통신서비스 △금융·부동산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등, 총 9개 산업군으로 분류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KRX300을 발표하면서 편입 종목과 각 산업군의 반영 비중 및 종목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통합지수 발표 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주용 한국거래소 인텍사업부 팀장은 “특정 산업군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9개의 섹터를 현재 산업군의 규모에 따라 현황을

반영하다 보니 IT와 금융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헬스케어(바이오)섹터에 대해 “KRX300 시가총액 비중은 6%에 불과하지만, 심사대상에 오른 주요 헬스케어 종목의 시총 90%가 KRX300에 편입되는 등, 시장의 비중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KRX300지수를 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해당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한 결과, 유가 및 코스닥에서 각각 232종목(77%), 68종목(34%)이 선정됐다. 아울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종목들 중 각각 182개, 66개가 대거 KRX300에 포함됐다.

하유미 기자 jscs508@

KB자산운용 ‘KB소프트파워펀드’

KB자산운용이 12일 소프트파워를 보유한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KB소프트파워펀드’를 선보이고, KB국민은행과 KB증권을 통해 판매를 개시했다.

‘소프트파워’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요소인 혁신적 기술, 차별화된 아이디어, 특허, 서비스 경쟁력, 브랜드 소비력 등과 같은 무형자산을 뜻한다. 해당 펀드는 △제조과학기술 보유군 △문화콘텐츠 기업군 △서비스플랫폼 기업군으로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성장 잠재력과 경쟁우위 지속 가능성, 사업 확장 용이성 등을 고려해 투자한다. 특히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코스닥 종목에도 20~30% 투자를 병행할 계획이다.

투자 예정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코오롱인더 등 IT 신기술 보유기업과 한미약품·셀트리온 등 신약개발업체, 엔씨소프트·NAVER·아모레퍼시픽·CJ E&M 등



문화콘텐츠 보유기업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펀드를 운용하는 조지현 액티브운용본부 매니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별적인 기술이나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대표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해 기존 펀드와 차별성을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매니저는 KB자산운용의 대표 성장주펀드인 ‘KB한국대표그rowth펀드(2017년 수익률 27.82%)’, ‘KB그로스포커스펀드(2017년 수익률 27.41%)’를 운용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탈 석탄’ ‘탈 원전’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ENERGY FOR THE FUTURE

에너지의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과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추천도서



반 스크레이즈·고든 매케론 외 지음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수 | 384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범, 화석연료에너지 왜 변화 못하나?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가져올 방법론을 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 탄소배출로 인한 온난화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의 공통된 키워드는 ‘에너지’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와 자동차 등 에너지산업, 그동안 우리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던 에너지산업이 우리에게 갈날이 되어 돌아왔다.

〈에너지의 미래〉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고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문의 : 02-3156-3824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PLATFORM REVOLUTION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포브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
올해의 비즈니스 필독서
‘800CEO리드’ 베스트셀러



마셜 밴 앨스타인 외 2인 지음
512쪽 | 부키 | 값 22,000원

정보경제학의 세계적 거장들이 저술한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한 최초의 안내서!

플랫폼이 왜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글로벌 대기업조차 플랫폼 기업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산업이 플랫폼 기업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알려준다. 무엇보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거나 제대로 활용하고 싶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줄 것이다.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기존 기업을 플랫폼 기업으로 바꾸게끔 영감을 주는 안내서. _ **김해관 스마베, 전 SAP 최고경영자**
완벽하다. 그리고 도발적이다. _ **‘월스트리트 저널’**
우리에게 특별히 취약한 플랫폼적 사고를 일깨워주고 빅데이터의 의미를 다시금 성찰하게 만든다. _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문의 : 02-3142-0484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설계·감리 성공적 수행”

희림, ‘공항설계 강자’ 다시 한번 입증

첨단장비 활용 이용자 편의 증진
탐승 수속·환승 시간 크게 줄여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40% 절감
전세계 공항 건축 패러다임 제시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국내 외에서 수주한 공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공항 프로젝트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희림은 18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설계와 감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세계 최고의 공항 설계 및 CM사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사업은 2011년 국제현상설계 공모에서 희림컨소시엄(희림, 겐슬러, 무영)의 설계안이 최종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됐으며, 빠른 건설을 위해 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여객터미널(왼쪽) 모습.

사진제공 희림

시설에 도중에 일부 공사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사가 추진됐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규모는 지하 2층·지상 5층으로, 연면적 38만4336㎡, 연간 수용능력은 1800만 명이다. 새 터미널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설 속 동물인 ‘봉황’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외관을 보면 봉황의 날개가 양쪽에서 건물을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또 내부 체크인 카운터 지역은 봉황의 깃털을 형상화하고 있다.

희림 측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설계하기 위해 수많은 공항 프로젝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했다”며 “공항 운영자와 이용자의 편의성, 환승 여객과 수하물의 흐름 최적화, 추가 확장 계획, 친환경 설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첨단 기술 장비와 이용자 중심의 설계로 탐승수속 시간, 출입국 시간, 환승 시간을 크게 줄

였다. 또 버스, 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객 편의를 위해 출입국 대기공간을 제1여객터미널보다 3배 넓히고, 활주로와 항공기를 볼 수 있는 전망대 등을 조성했다. 또한, 제2여객터미널은 친환경, 저탄소 설계로 지어졌으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1터미널과 비교해 약 4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

희림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이어 제2여객터미널도 성공리에 준공되면서 우수한 공항 설계 기술력과 경험에 다시 한 번 입증됐다고 자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항 프로젝트는 특수설계 분야로 진입장벽이 높고, 고도의 정교한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건축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전 세계 공항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큐렉소, 인공관절 수술 로봇 2대 美 공급

美 자회사, 병원에 판매
이달 內 추가 판매 예정



큐렉소의 인공관절 수술 로봇.

사진제공 큐렉소

큐렉소는 미국 자회사 씽크서지컬(Think Surgical Inc.)이 최근 미국에서 신제품 수술 로봇 ‘티솔루션원(TSolution One)’ 2대의 납품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12일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텍사스 주의 라레이도 병원(Laredo Hospital)은 계약과 동시에 납품이 이루어졌고, 같은 주 코너스톤 병원(Cornerstone Hospital)에도 판매계약이 완료됐다”며 “이달 안에 또 다른 추가 계약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권을 확보한 아시아 퍼시픽 지역도 1분기 내 매출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큐렉소의 신제품 수술 로봇의 유럽통합규격인증(CE) 승인은 지난해 12월 완료됐고, 이를 토대로 호주 내 인허가 등록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다. 호주는 CE 인증 의료기기에 대해 자국 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회사 측은 1월 내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파트너십을 체결한 짐머바이오펜트 아시아와의 협업을 통해 뉴질랜드와 일본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도 나서고 있다. 일본은 현지 컨설팅 기업과의 계약 체결 후 안허가를 추진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달 초 베트남

의사 4명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며 “수술 참관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 현재 구버전 수술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에도 신제품을 설치해 아시아 거점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뿐 아니라 국내시장 공략을 위해 인공관절 수술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산, 경남, 전남 지역을 집중 영업지역으로 설정하고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큐렉소는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한 하지재활로봇과 관련, 세계 최초 팔 재활로봇 제조판매사인 캐나다 바이오닉과 제품 교차판매 협약도 추진 중이다.

남주현 기자 jooh@

에이비온, 바이오테라 해독제 개발

백신·항체 치료제 軍에 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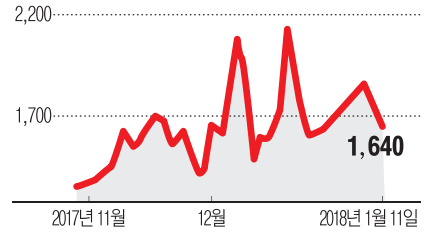
케이피엘테크 관계사 에이비온이 군 관련 핵심기술 과제인 ‘독소작용 해독제 개발’ 연구를 마쳐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해당 과제에 대한 합계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바이오테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독소 3종에 대비하기 위한 해독제 발굴을 목표로 2014년 시작됐다. 에이비온은 바이오신약 개발 노하우 및 기술력을 인정받아 단독 시제(백신 및 치료제 후보물질) 업체로 선정돼 16억원 규모의 연구시제 개발 및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이비온은 해당 연구 주제를 지식개발전략원 주관의 특허전략지원사업에 추가로 선정돼 이를 통해 해독제 설계를 진행했으며 △백신 및 항체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발현 및 생산 △면역마를 이용한 마혈정(馬血精) 해독제 후보물질 제조를 수행했다. 최종적으로 시험관 및 생체 내 방어 효능 평가를 통해 선별된

케이피엘테크 주가 추이

(단위: 원)



후보물질의 제조공정과 제형을 개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당국에 2종 이상의 방어용 백신과 2종 이상의 항체 치료제, 3종 이상의 마혈정 치료제 후보물질을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현재 총 3건 이상의 관련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이번 연구 성과로 몇 차례 이상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 백신뿐 아니라 한 번 투여로 바로 효과가 나오는 해독제에 대한 개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본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i78@

투비소프트, KT 영업전산시스템 UI 구축

자사 넥사크로플랫폼 활용

투비소프트는 자사의 사용자환경(UI·UX) 개발 솔루션인 넥사크로플랫폼(Nexacro Platform)으로 KT의 영업전산시스템 KOS(KT ONE SYSTEM)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KOS 프로젝트는 유선과 무선으로 각각 분리된 전산시스템을 통합해 산재된 고객 정보를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업무 처리 효율을 높임으로써 고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성이 늘고, 고객 응대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투비소프트는 넥사크로플랫폼 공급 및 프로젝트 UI 아키텍트(Architect) 역할을 담당했다.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속도 및 성능 측면에서 고객사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프로젝트 과정에 필수적인 약 1500본의 화면을 투비소프트 ‘컨버전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인프라 조기 안정화에는 시간과 비용을 큰 폭으로 절감했다.

투비소프트는 ‘KT KOS’ 프로젝트는 복잡하고 방대한 시스템을 넥사크로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초기부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사례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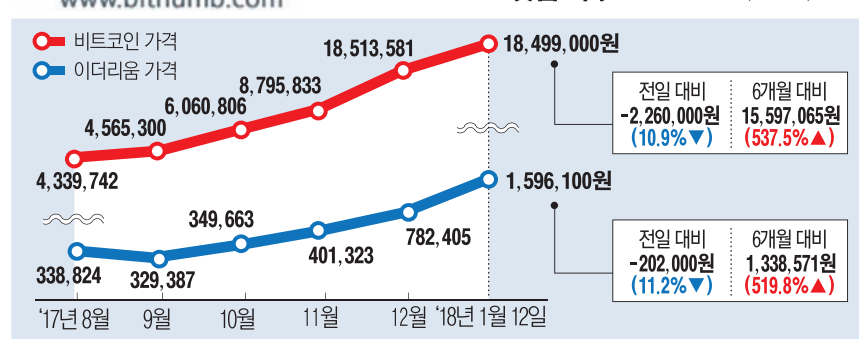
이흥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는 “KT 프로젝트는 오랜 시간 공들여온 프로젝트라 기대와 애착이 컸다”며 “넥사크로플랫폼은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는 기간제급 시스템들이 출자어 있다”고 말했다.

넥사크로플랫폼은 투비소프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UI·UX 개발 플랫폼이다. 2014년 출시 이래 현재까지 제조, 서비스, 유통,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550여 건이 넘는 구축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김우람 기자 hura@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8년 1월 12일, 08:00, KST)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코인명	가격	전일대비
비트코인캐시	3,412,000원	-708,000원 (17.2%)	모넬로	500,200원	-81,700원 (14.0%)
리플	2,615원	-122원 (4.5%)	비트코인골드	252,600원	-45,200원 (15.2%)
라이트코인	314,600원	-36,500원 (10.4%)	이더리움 클래식	45,170원	-7,520원 (14.3%)
대시	1,387,200원	-180,200원 (11.5%)	퀀텀	63,910원	-12,000원 (15.8%)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Official Automobile Partner

“올 겨울
레이와 함께하다”



함께하는 즐거움 레이면 충분하다
The New **RAY** 탄생



The Power to Surprise



새롭게 탄생한 The New RAY 와 함께 하세요!

- I 유니크한 신규 디자인 - 프로젝션 헤드램프 & LED DRL, 신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 적용
- I 한층 강화된 안전 사양 - 급제동 경보시스템(ESS), 롤오버센서 적용
- I 컬러풀한 TUON 패키지 - 내외장 드레스업 패키지, 반려견 패키지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레이 1.0 가솔린 14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 12.2km/ℓ, 고속도로연비 : 13.9km/ℓ) | 배기량 998cc | 공차중량 1,040kg | 복합 CO₂ 배출량 127g/km • 레이 1.0 가솔린 15인치 타이어 : 복합연비 12.7km/ℓ (도심연비 : 11.9km/ℓ, 고속도로연비 : 13.8km/ℓ) | 배기량 998cc | 공차중량 1,045kg | 복합 CO₂ 배출량 130g/km • 레이 1.0 가솔린 14인치 타이어 VAN :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 12.2km/ℓ, 고속도로연비 : 13.9km/ℓ) | 배기량 998cc | 공차중량 1,030kg | 복합 CO₂ 배출량 127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 Care Service
기아자동차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